رئاسة الشؤون الدينية
بالمسجد الحرام والمسجد النبوي

مَا لَا يَسَعُ المُسْلِمَ جَهْلُهُ | كوري | 한국어

무슬림으로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

학술위원회 메카의 대성원과 메디나의 예언자 성원의
종교 사무 주관

ⓒ جمعية خدمة المحتوى الإسلامي باللغات ، ١٤٤٨هـ

جمعية خدمة المحتوى الإسلامي باللغات
ما لا يسع المسلم جهله - كوري. / جمعية خدمة المحتوى الإسلامي باللغات - ط١. .- الرياض ، ١٤٤٨هـ
٢٠١ ص ؛ ..سم

رقم الإيداع: ١٤٤٨/٧٩٧٧
ردمك: ٣-٦٦١-٥١٧-٦٠٣-٩٧٨

مَا لَا يَسَعُ المُسْلِمَ جَهْلُهُ

무슬림으로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

اللَّجْنَةُ العِلْمِيَّةُ
بِرِئَاسَةِ الشُّؤُونِ الدِّينِيَّةِ بِالمَسْجِدِ الحَرَامِ وَالمَسْجِدِ النَّبَوِيِّ

학술위원회 메카의 대성원과 메디나의 예언자
성원의 종교 사무 주관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무슬림으로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

서문

실로 모든 찬미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유를 위한 자비로 보내지신 분과 그분의 가문과 교우들,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그분의 순나를 따르고 그분의 인도로써 바른길을 걷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 후(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간략한 책자는 무슬림이 신앙과 예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성지(하람 성원과 선지자 성원)를 방문하는 남녀 무슬림들이 자신의 종교적 사안들에 대해 지식과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엮었습니다.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유익을 주시고, 이 노력이 선하게 쓰이며 오직 당신만을 향한 순수한 헌신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그분은

간구하기에 가장 훌륭하신 분이시며, 소망하기에 가장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람 성원과 선지자 성원 종무 총괄부 산하 학술 위원회.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1장:

아끼다(신앙)와 관련된 내용

제1절: 이슬람의 의미와 그 기둥들:

이슬람이란, 타우히드(유일성)로써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께 따르며, 쉬르크(우상숭배)와 그 무리들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수 요소들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이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언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

세번째: 자카(의무 희사)를 내는 것.

넷째: 라마단 단식.

다섯째: 능력이 닿는 자가 하람 성원으로 성지순례(핫즈)를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사상의 중요성: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심은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께 어떤 것도 동등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مَا خَلَقْتُ ٱلْجِنَّ وَٱلْإِنسَ إِلَّا لِيَعْبُدُونِ ﴿٥٦﴾﴾

"내가 진(Jinn)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오직 그들이 나를 경배토록 하기 위함이라. 56" [앗-다리야트: 56], 이러한 경배는 오직 지식을 통해서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فَٱعْلَمْ أَنَّهُۥ لَآ إِلَٰهَ إِلَّا ٱللَّهُ وَٱسْتَغْفِرْ لِذَنۢبِكَ وَلِلْمُؤْمِنِينَ وَٱلْمُؤْمِنَٰتِ ۗ وَٱللَّهُ يَعْلَمُ مُتَقَلَّبَكُمْ وَمَثْوَىٰكُمْ ﴿١٩﴾﴾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알라. 그리고 당신의 죄와 믿는

남녀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활동과 거처를 알고 계시노라. 19" [무함마드: 19],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에 앞서 지식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는 그것이 종교의 근본이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신앙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무슬림에게 첫 번째 의무이자 마지막 의무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모든 무슬림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하는 이슬람의 필수 요소들 중 첫 번째이며, 이 필수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압둘라 빈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분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بُنِيَ الإِسْلَامُ عَلَى خَمْسٍ: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هِ، وَإِقَامِ الصَّلَاةِ، وَإِيتَاءِ الزَّكَاةِ، وَحَجِّ البَيْتِ، وصَوْمِ رَمَضَانَ».

"이슬람은 다섯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는 것, 예배를 확립하는 것, 자카를 내는 것, 성지순례를 하는 것, 그리고 라마단에 단식하는 것입니다."[1]

무슬림은 유일신 신앙의 의미를 배워야 하며, 이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함에 있어 가까운 천사나 보냄을 받은 선지자 등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는 없다"는 증언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강대하고 존엄하신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경배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분만을 경배하며, 간구, 두려움, 희망, 의탁 등 모든 종류의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8).

경배는 오직 그분께만 드려져야 한다.

이 증언은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갖춰져야 실현됩니다:

첫째: 하나님 외의 그 어떤 존재, 즉 모든 대등한 존재와 신들, 그리고 우상들에 대해 신성과 경배받을 자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신성과 경배의 권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لَقَدۡ بَعَثۡنَا فِي كُلِّ أُمَّةٖ رَّسُولًا أَنِ ٱعۡبُدُواْ ٱللَّهَ وَٱجۡتَنِبُواْ ٱلطَّٰغُوتَ...﴾

"실로 우리가 각 민족에게 사도를 보내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따구트)을 멀리하라 하였노라..." [안-나흘: 36].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지를 배제하는 지식.

둘째: 의심을 타파하는 확신.

셋째: 쉬르크를 타파하는 진실성.

넷째: 거짓을 타파하는 정직함.

다섯째: 증오와 상반되는 사랑.

여섯째: 거부와 상반되는 순종.

일곱째: 거절을 타파하는 수용.

여덟째: 하나님이 아닌 숭배받는 존재를 불신하는 것.

이 조건들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다음의 두 시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확신, 진실성과 정직함, 그리고 사랑과 순종과 수용이 함께해야 하네.

거기에 여덟째를 더하니, 하나님 외에 신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네.

이 증언을 실현하는 것은 동반자가 없으신 지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진심을 다해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를 드리며, 오직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하나님만을 위해 희생 동물을 바쳐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무덤 주위를 돌며 그 안에 묻힌

이들에게 구원을 청하고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간구하는 행위는 경배에 있어 쉬르크(우상숭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다신교도들이 지고하신 하나님 대신 우상과 돌, 나무를 숭배하던 것과 같은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서가 내려지고 사도들이 보내져서 경고하고 금지하고자 했던 바로 그 쉬르크입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증언의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전하신 정보를 진실로 믿으며, 그분께서 금지하고 경고하신 것을 멀리하고, 오직 그분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꾸라이시 부족 하심 가문의 무함마드 빈 압둘라가 진(Jinn)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보내진 강대하고 존엄하신 하나님의 사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قُلۡ يَٰٓأَيُّهَا ٱلنَّاسُ إِنِّي رَسُولُ ٱللَّهِ إِلَيۡكُمۡ جَمِيعًا...﴾

"말하라.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노라...'" [알-아으라프: 158].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교를 전하고 피조물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를 보내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وَمَآ أَرۡسَلۡنَٰكَ إِلَّا كَآفَّةٗ لِّلنَّاسِ بَشِيرٗا وَنَذِيرٗا وَلَٰكِنَّ أَكۡثَرَ ٱلنَّاسِ لَا يَعۡلَمُونَ ٢٨﴾

"우리가 당신을 보내매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의 전달자이자 경고자로 보냈노라.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알지 못하더라. 28" [싸바: 28]. 또한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مَآ أَرۡسَلۡنَٰكَ إِلَّا رَحۡمَةٗ لِّلۡعَٰلَمِينَ ١٠٧﴾

하나님이 그대를 보냄은 만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알-안비야: 107].

이 증언의 요구 사항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가 주재권(루부비야)을 가졌거나 우주를 주관한다고 믿지 않으며, 그가 경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며, 부인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그 어떤 이익이나 해악도 주관하지 못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قُل لَّآ أَقُولُ لَكُمۡ عِندِي خَزَآئِنُ ٱللَّهِ وَلَآ أَعۡلَمُ ٱلۡغَيۡبَ وَلَآ أَقُولُ لَكُمۡ إِنِّي مَلَكٌۖ إِنۡ أَتَّبِعُ إِلَّا مَا يُوحَىٰٓ إِلَيَّ...﴾

"말하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내게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다고 말하지도 않노라. 또한 내가 천사라고 너희에게 말하지도 않노라. 나는 오직 내게 계시되는 것만을 따를 뿐이라...'" [알-안암: 50].

제2절: 믿음의 의미와 필수 요소들:

신앙(이만): 마음으로 확신하고, 혀로 고백하며,

마음과 신체 기관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순종을 통해 깊어지고 불순종을 통해 약해집니다.

따라서 이만은 모든 경배 행위가 올바르게 성립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쉬르크(우상숭배)와 쿠프르(불신)가 모든 순종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정(우두)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듯, 이만(신앙) 없는 경배 또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مَن يَعۡمَلۡ مِنَ ٱلصَّٰلِحَٰتِ مِن ذَكَرٍ أَوۡ أُنثَىٰ وَهُوَ مُؤۡمِنٞ فَأُوْلَٰٓئِكَ يَدۡخُلُونَ ٱلۡجَنَّةَ وَلَا يُظۡلَمُونَ نَقِيرٗا ١٢٤﴾

"남자든 여자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선행을 실천한다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대추야자 씨앗의 홈만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 124" [안-니사: 124].

또한 하나님께서는 쉬르크가 모든 행위를 헛되게 함을 밝히셨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وَلَقَدۡ أُوحِيَ إِلَيۡكَ وَإِلَى ٱلَّذِينَ مِن قَبۡلِكَ لَئِنۡ أَشۡرَكۡتَ لَيَحۡبَطَنَّ عَمَلُكَ

وَلَتَكُونَنَّ مِنَ ٱلۡخَٰسِرِينَ ﴿٦٥﴾

"실로 당신과 당신 이전의 이들에게 계시가 내려졌으니, 만약 당신이 쉬르크를 범한다면 당신의 행위는 반드시 헛수고가 될 것이며 당신은 분명 손실자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 65" [아즈-주마르: 65].

믿음의 필수 요소는 여섯 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천사들을 믿는 것, 그분의 책들을 믿는 것, 그분의 사도들을 믿는 것, 최후의 날을 믿는 것, 그리고 정명(까다르)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믿는 것입니다.

1) 지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1- 그분의 주님 되심에 대한 믿음:

이는 창조, 일용할 양식의 부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심 등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 그분이 유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살리시는 분도 죽이시는 분도 없습니다. 영광스럽고 지고하신 그분 외에는 우주를 주관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되심(루부비야)을 부인한 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말에 스스로 확신도 없으면서 오만하게 구는 자들은 예외입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أَنَا رَبُّكُمُ الْأَعْلَىٰ﴾

"내가 너희의 가장 높은 주님이라. 24" [안-나지아트: 24],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قَالَ لَقَدْ عَلِمْتَ مَآ أَنزَلَ هَٰٓؤُلَآءِ إِلَّا رَبُّ ٱلسَّمَٰوَٰتِ وَٱلْأَرْضِ بَصَآئِرَ وَإِنِّى لَأَظُنُّكَ يَٰفِرْعَوْنُ مَثْبُورًا ﴿١٠٢﴾﴾

"모세가 말하길 '당신은 하늘들과 땅의 주님께서 이 명백한 증거들을 내리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소. 오 파라오여, 참으로 나는 당신이 멸망할 자라고 생각하오.' 102" [알-이쓰라: 102],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جَحَدُوا بِهَا وَاسْتَيْقَنَتْهَا أَنْفُسُهُمْ ظُلْمًا وَعُلُوًّا... ﴾

"그들의 마음은 그것이 진실임을 확신하였으나, 불의와 오만함으로 그것을 부정하였노라..."

[안-나믈: 14].

실로 모든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창조주가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자신을 창조할 수는 없으며, 우연히 존재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일으킨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물이 이처럼 놀라운 질서와 조화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연의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만물에는 창조하신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분은 바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أَمْ خُلِقُواْ مِنْ غَيْرِ شَيْءٍ أَمْ هُمُ ٱلْخَٰلِقُونَ ۝٣٥ أَمْ خَلَقُواْ ٱلسَّمَٰوَٰتِ وَٱلْأَرْضَۚ بَل لَّا يُوقِنُونَ ۝٣٦﴾

그들이 저절로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창조자란 말인가?

그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노라. 그들은 굳건히 믿지 않더라. 36﴾ [뚜르: 35-36].

과거의 다신교도들도 하나님의 루부비야(주재성)는 인정했으나, 울루히야(신성)에 있어 쉬르크를 범했기 때문에 이슬람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들과 싸우셨던 것은 그들이 경배에 있어 쉬르크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이나 돌, 천사 등을 숭배했습니다.

2-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 즉,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는 대등한 존재가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라(الإله)'는 '말루흐(المألوه)', 즉 사랑과 숭고함과 겸손함으로 경배받는 존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إِلَٰهُكُمْ إِلَٰهٌ وَٰحِدٌ ۖ لَّآ إِلَٰهَ إِلَّا هُوَ ٱلرَّحْمَٰنُ ٱلرَّحِيمُ ﴿١٦٣﴾﴾

"너희의 일라는 유일한 분이라.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그분 외에는 진정으로 경배받을 존재가 없노라. 163"

[알-바까라: 163].

누구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두어 숭배한다면 그 신성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ذَٰلِكَ بِأَنَّ ٱللَّهَ هُوَ ٱلْحَقُّ وَأَنَّ مَا يَدْعُونَ مِن دُونِهِۦ هُوَ ٱلْبَٰطِلُ وَأَنَّ ٱللَّهَ هُوَ ٱلْعَلِيُّ ٱلْكَبِيرُ ﴿٦٢﴾﴾

"그것은 실로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그분 대신 그들이 기원하는 것은 헛된 허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도다. 62" [알-하즈: 62].

그러므로 노아로부터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타우히드를 전하며,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신교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두어 숭배하며 그들에게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헛됨을 다음 두 가지 이성적 논거로 밝히셨습니다:

첫째: 그들이 내세운 신들에게는 신성의 특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창조된 피조물일 뿐 무언가를 창조하지 못하며, 숭배자에게 이익을 주지도 해악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주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وَٱتَّخَذُواْ مِن دُونِهِۦٓ ءَالِهَةً لَّا يَخۡلُقُونَ شَيۡـٔٗا وَهُمۡ يُخۡلَقُونَ وَلَا يَمۡلِكُونَ لِأَنفُسِهِمۡ ضَرّٗا وَلَا نَفۡعٗا وَلَا يَمۡلِكُونَ مَوۡتٗا وَلَا حَيَوٰةٗ وَلَا نُشُورٗا ٣﴾

"그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두었으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며 도리어 창조된 것들이라. 또한 스스로를 위해 어떠한 해악이나 이익도 주관하지 못하며 죽음과 삶과 부활도 주관하지 못하느니라. 3" [알-푸르깐: 3].

둘째: 다신교도들 스스로도 지고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한 것처럼, 마땅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قُل لِّمَنِ ٱلۡأَرۡضُ وَمَن فِيهَآ إِن كُنتُمۡ تَعۡلَمُونَ ٨٤ سَيَقُولُونَ لِلَّهِۚ قُلۡ أَفَلَا تَذَكَّرُونَ ٨٥ قُلۡ مَن رَّبُّ ٱلسَّمَٰوَٰتِ ٱلسَّبۡعِ وَرَبُّ ٱلۡعَرۡشِ ٱلۡعَظِيمِ ٨٦ سَيَقُولُونَ لِلَّهِۚ قُلۡ أَفَلَا تَتَّقُونَ ٨٧ قُلۡ مَنۢ بِيَدِهِۦ مَلَكُوتُ كُلِّ شَيۡءٖ وَهُوَ يُجِيرُ وَلَا يُجَارُ عَلَيۡهِ إِن كُنتُمۡ تَعۡلَمُونَ ٨٨ سَيَقُولُونَ لِلَّهِۚ قُلۡ فَأَنَّىٰ تُسۡحَرُونَ ٨٩﴾

"말하라. '만약 너희가 안다면,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84"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답하리라. 말하라. '그런데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85"

"말하라. '일곱 하늘들의 주님이며 위대한 보좌의 주님이 누구시냐?' 86"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답하리라. 말하라. '그런데도 너희는 경외하지 않느냐?' 87"

"말하라. '만약 너희가 안다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그 손에 쥐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호하시되 보호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누구시냐?' 88"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답하리라. 말하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홀린 듯이 속고 있느냐?' 89" [알-무으미눈: 84-89]. 이처럼 하나님의 루부비야(주재성)를 인정한다면, 마땅히 오직 영광받으실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며, 그분을 경배함에 있어 그 어떤 존재도 동위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3-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꾸란)에서 스스로에 대해 밝히신 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의 순나(전승)에서 하나님을 위해 확증하신 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을 지고하신 하나님께 걸맞은 방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변조(타흐리프)하거나 부정(타으띠르)해서는 안 되며, 방식(타키이프)을

규정하거나 피조물에 비유(탐실)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وَلِلَّهِ ٱلۡأَسۡمَآءُ ٱلۡحُسۡنَىٰ فَٱدۡعُوهُ بِهَاۖ وَذَرُواْ ٱلَّذِينَ يُلۡحِدُونَ فِيٓ أَسۡمَٰٓئِهِۦۚ سَيُجۡزَوۡنَ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١٨٠﴾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으니 그 이름들로 그분께 간구하라. 그분의 이름들을 왜곡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180" [알-아으라프: 180],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يۡسَ كَمِثۡلِهِۦ شَيۡءٞۖ وَهُوَ ٱلسَّمِيعُ ٱلۡبَصِيرُ﴾

"그분과 유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 11" [아쉬-슈라: 11].

쉬르크(우상숭배)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1- 큰 쉬르크.

2- 작은 쉬르크.

3- 은밀한 쉬르크.

1- 중대한 우상숭배(큰 쉬르크):

그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إِذۡ نُسَوِّيكُم بِرَبِّ ٱلۡعَٰلَمِينَ ٩٨﴾

"실로 우리가 너희를 만유의 주님과 동등하게 여겼노라. 98" [아쉬-슈아라: 98].

이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를 드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는 간구, 절박한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제물을 잡아 바치는 것 등 여러 숭배 행위 중 일부를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한 강대하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는 허용하신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는 강대하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의무화하신 것을 폐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종교적으로 금지됨이 명백히 알려진 것, 즉 간통, 음주, 부모에 대한 불효, 이자(리바)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좋은 것들을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규정하신 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단식, 자카가 의무가 아니라고 믿는 것 등입니다.

큰 쉬르크는 모든 행위를 헛수고로 만들며, 참회 없이 그 상태로 죽는 자를 불지옥에서 영원히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وَلَوۡ أَشۡرَكُواْ لَحَبِطَ عَنۡهُم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만약 그들이 쉬르크를 범했다면 그들이 행해온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되었을 것이라. 88"

[알-안암: 88].

또한 그 상태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천국은 금지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إِنَّ ٱللَّهَ لَا يَغۡفِرُ أَن يُشۡرَكَ بِهِۦ وَيَغۡفِرُ مَا دُونَ ذَٰلِكَ لِمَن يَشَآءُ...﴾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동반자를 두는(쉬르크)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그 이외의

것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를 위해 용서하시노라... 48" [안-니사: 48].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إِنَّهُۥ مَن يُشۡرِكۡ بِٱللَّهِ فَقَدۡ حَرَّمَ ٱللَّهُ عَلَيۡهِ ٱلۡجَنَّةَ وَمَأۡوَىٰهُ ٱلنَّارُ...﴾

"실로 하나님께 동반자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금하셨으며 그의 거처는 불지옥이 될 것이라... 72" "[알-마이다: 72]."

2- 작은 쉬르크:

성서와 전승에서 '쉬르크'라고 명시되었으나 큰 쉬르크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쉬르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고하신 하나님 이외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카바, 선지자들, 신의(아마나), 누군가의 생명 등을 두고 맹세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مَنْ حَلَفَ بِغَيرِ اللهِ فَقَدْ كَفَرَ أَو أَشْرَكَ».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맹세하는 자는

불신했거나 쉬르크를 범한 것입니다."[1]

단, 맹세하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이것이 큰 쉬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지자나 특정 스승(셰이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대등하다거나, 하나님 대신 간구받아야 할 존재라거나, 우주를 주관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쉬르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 없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작은 쉬르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일은 일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타우히드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를 인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3- 은밀한 우상숭배:

그것은 마음에 존재하는 리야(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배를 드리거나 꾸란을 읽는 자, 또는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 위해 찬미를 하거나

[1] 아흐마드의 무스나드(6072번), 앗-티르미디(1535번) 전승. 그는 이를 하산 하디스라고 하였다.

칭찬을 듣기 위해 자선을 베푸는 자와 같습니다. 이는 지고하신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행한 나머지 행위들과는 달리, 오직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행한 그 행위만을 헛되게 할 뿐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시기를:

«الشِّرْكُ فِي هَذِهِ الْأُمَّةِ أَخْفَى مِنْ دَبِيبِ النَّمْلَةِ السَّوْدَاءِ عَلَى الصَّفَاةِ السَّوْدَاءِ فِي ظُلْمَةِ اللَّيْلِ، وَكَفَّارَتُهُ أَنْ يَقُولَ: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أَنْ أُشْرِكَ بِكَ شَيْئًا وَأَنَا أَعْلَمُ، وَأَسْتَغْفِرُكَ مِنَ الذَّنْبِ الَّذِي لَا أَعْلَمُ».

«이 공동체에서 쉬르크(하나님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는 어두운 밤 검은 바위 위를 기어가는 검은 개미의 발걸음보다 더 은밀하노라. 그에 대한 속죄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라. "오 하나님, 실로 저는 제가 알면서 당신께 대등한 존재를 두는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당신께 보호를 구하며,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당신께 용서를 구하나이다."»[1]

[1] 알-부카리의 『알-아다브 알-무프라드』(716번), 아흐마드의 『알-무스나드』(19606번), 알-디야 알-마끄디시의 『알-아하디스 알-

불신의 종류:

첫 번째 종류: 큰 불신:

이는 불지옥에 영원히 거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부정에 의한 불신:

그것은 선지자들을 부정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백한 증거들로써 당신의 사도들을 지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상태는 실로 하나님께서 묘사하신 바와 같습니다:

﴿وَجَحَدُوا بِهَا وَاسْتَيْقَنَتْهَا أَنْفُسُهُمْ ظُلْمًا وَعُلُوًّا...﴾

그들의 영혼은 그것이 진실임을 확신하였음에도 불의와 거만함으로 인해 이를 부정하였노라... [안-나흘: 14].

2- 거부와 거만으로 인한 불신:

이는 이블리쓰의 불신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르는 체하지

무크타라』(1/150) 전승, 알-알바니가 『사히흐 알-자미 알-사기르』(3731번)에서 사히흐로 판정.

않았으나, 오직 거부와 거만함으로 그 명령에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وَإِذۡ قُلۡنَا لِلۡمَلَٰٓئِكَةِ ٱسۡجُدُواْ لِأٓدَمَ فَسَجَدُوٓاْ إِلَّآ إِبۡلِيسَ أَبَىٰ وَٱسۡتَكۡبَرَ وَكَانَ مِنَ ٱلۡكَٰفِرِينَ ٣٤﴾

우리가 천사들에게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모두 절하였으나 오직 이블리쓰만은 예외였으니, 그가 거부하고 거만하게 굴어 불신자 중의 하나가 되었노라. [알-바까라: 34].

3- 등을 돌리는 불신(외면):

이는 귀와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것을 외면하여,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وَمَنۡ أَظۡلَمُ مِمَّن ذُكِّرَ بِـَٔايَٰتِ رَبِّهِۦ ثُمَّ أَعۡرَضَ عَنۡهَآۚ إِنَّا مِنَ ٱلۡمُجۡرِمِينَ مُنتَقِمُونَ ٢٢﴾

자신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징표들로 권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등을 돌린 자보다 더 불의한 자가 누구이겠느뇨. 실로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수하리라. [앗-사즈다: 22].

다만 부분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는 불신(쿠프르)이 아니라 불온(피스크)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단식이나 순례의 규정 등 종교의 일부 의무를 배우는 것을 회피하는 자의 경우입니다.

4- 의심에 의한 불신:

이는 진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وَدَخَلَ جَنَّتَهُ وَهُوَ ظَالِمٌ لِنَفْسِهِ قَالَ مَا أَظُنُّ أَنْ تَبِيدَ هَذِهِ أَبَدًا ۝٣٥ وَمَا أَظُنُّ السَّاعَةَ قَائِمَةً وَلَئِنْ رُدِدْتُ إِلَى رَبِّي لَأَجِدَنَّ خَيْرًا مِنْهَا مُنْقَلَبًا ۝٣٦﴾

그는 자신의 영혼에 불의를 저지르며 과수원에 들어가 말하기를 "이것이 결코 멸망할 것이라 생각지 않노라" 하였으며,

"심판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지도 않노라. 설령 내가 나의 주님께로 되돌려진다 할지라도, 실로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귀착지를 발견하리라" 하였노라. [알-카흐프: 35-36].

5- 위선에 의한 불신:

이는 혀로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마음속으로는

부정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وَمِنَ ٱلنَّاسِ مَن يَقُولُ ءَامَنَّا بِٱللَّهِ وَبِٱلۡيَوۡمِ ٱلۡأٓخِرِ وَمَا هُم بِمُؤۡمِنِينَ ٨﴾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노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실로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알-바까라: 8].

이것들이 바로 이슬람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큰 불신의 종류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 소불신(작은 불신):

이러한 종류는 불지옥에서의 영원한 거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서와 순나에서 정관사(알리프와 람) 없이 비한정 명사(나키라) 형태로 '불신'이라 지칭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는 많으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اثْنَتَانِ فِي النَّاسِ هُمَا بِهِمْ كُفْرٌ: الطَّعْنُ فِي النَّسَبِ، وَالنِّيَاحَةُ عَلَى المَيِّتِ».

«사람들 사이에 불신(쿠프르)에 해당하는 두 가지 행위가 있으니, 타인의 가문을 비방하는 것과 죽은 자를 위해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이라.»[1]

2) 천사들에 대한 믿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복들입니다. 그들은 주권(루부비야)이나 신성(우루히야)의 속성을 조금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으며, 오직 명령받은 대로만 행합니다. 그들의 수는 매우 많아 오직 지고하신 하나님만이 그 수를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1- 그들의 존재를 믿는 것.

[1] 무슬림(121번)과 아흐마드의 알-무스나드(10434번) 전승.

2- 지브릴, 미카일, 이쓰라필 등 우리가 그 이름을 아는 천사들을 믿는 것. 이름을 알지 못하는 천사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믿습니다.

3- 성서와 순나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그들의 속성을 믿는 것. 지브릴 천사의 경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그를 보셨는데, 그는 육백 개의 날개를 지니고 지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

4- 권태나 지침 없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등, 우리가 알게 된 그들의 임무를 믿는 것.

예를 들어 지브릴은 계시를 전달하는 충직한 천사입니다.

이쓰라필은 종말의 나팔을 부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죽음의 천사는 죽음의 순간 영혼을 거두는 임무를 맡은 천사입니다.

마리크는 불지옥의 관리자이며, 리드완은 천국의 관리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3) 성서들에 대한 믿음:

성서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도하고 자비를 베푸시어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이르게 하고자 당신의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천상의 책들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위한 인도이자 자비이며, 그들이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서들에 대한 믿음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1- 그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임을 믿는 것.

2-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계시된 꾸란과 같이, 우리가 이름을 아는 성서들을 믿는 것. 모세(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계시된 타우라(토라), 예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계시된 인질(복음서), 그리고

다윗(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에게 주어진 자부르(시편) 등입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성서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믿습니다.

3- 꾸란이 전하는 소식과 이전 성서들 중 왜곡되지 않은 부분들이 전하는 소식을 진실로 믿는 것.

4- 폐지되지 않은 규정들을 실천하며, 그 지혜를 이해하든 못하든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 이전의 모든 성서들은 위대한 꾸란에 의해 그 효력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성서들의 내용 중 올바른 것으로 확인되어 꾸란이나 선지자의 순나가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 성서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한 믿음:

루쑬은 '라쑬'의 복수형으로, 인간들 중에서 율법(샤리아)을 계시받아 이를 전달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 중 첫 번째는 누흐(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며, 마지막은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입니다. 그들은 창조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주권이나 신성의 속성을 조금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믿음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믿는 것. 그러므로 그들 중 어느 한 분의 메시지라도 불신하는 자는 실로 그들 모두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2- 무함마드, 이브라힘, 무싸, 이싸, 누흐(그들 모두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와 같이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 중에서도 '확고한 의지의 사도들(우룰 아즘)'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도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وَلَقَدۡ أَرۡسَلۡنَا رُسُلٗا مِّن قَبۡلِكَ مِنۡهُم مَّن قَصَصۡنَا عَلَيۡكَ وَمِنۡهُم مَّن لَّمۡ نَقۡصُصۡ

عَلَيْكَ...﴾

진실로 우리는 그대 이전에 사도들을 보냈으니, 그들 중에는 우리가 그대에게 이야기해 준 자들이 있고, 우리가 그대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은 자들도 있노라... [가피르: 78].

3-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이 전한 소식 중 정확한 것을 믿는 것.

4- 우리에게 파견되신 분이자 마지막 사도이신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법(샤리아)을 실천하는 것.

5)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

그날은 심판의 날이니, 사람들이 계산과 보응을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다른 날이 없기에 그렇게 불리며, 천국 사람들은 그들의 거처에, 지옥 사람들은 그들의 거처에 영원히 정착하게 됩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은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가- 부활에 대한 믿음:

이는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채로, 할례받지 않은 모습으로 만유의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كَمَا بَدَأْنَا أَوَّلَ خَلْقٍ نُعِيدُهُ وَعْدًا عَلَيْنَا إِنَّا كُنَّا فَاعِلِينَ ﴿١٠٤﴾﴾

우리가 태초에 창조를 시작했듯이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 실로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자들이라. [알-안비야: 104].

나- 심판과 보상에 대한 믿음: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계산을 받고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إِنَّ إِلَيْنَآ إِيَابَهُمْ ﴿٢٥﴾ ثُمَّ إِنَّ عَلَيْنَا حِسَابَهُم﴿٢٦﴾﴾

실로 나에게로 그들은 귀착할 것이며
실로 그 후 그들의 심판은 나의 몫이라.
[알-가시야: 25-26].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그 두 곳이 피조물의 영원한 귀착지임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순종하고 경외심을 지닌 믿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은총의 거처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눈도 본 적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 없으며, 어떤 인간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 불지옥은, 징벌의 거처이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도들을 거역한 불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입니다.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형벌과 고통이 있습니다.

6) 정명에 대한 믿음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

정명(까다르)이란: 하나님의 선행된 지식과 그분의 지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입니다.

정명에 대한 믿음은 다음 네 단계를 포함합니다:

1- 지식(알이름): 하나님의 지식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포괄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다 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실 그분께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영광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وَلَوۡ رُدُّواْ لَعَادُواْ لِمَا نُهُواْ عَنۡهُ ...﴾

설령 그들이 되돌려진다 할지라도, 실로 그들은 금지받았던 일을 다시 되풀이할 것이니... [알-안암: 28].

2- 기록(알키타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일어날 모든 것의 분량을 기록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أَلَمۡ تَعۡلَمۡ أَنَّ ٱللَّهَ يَعۡلَمُ مَا فِي ٱلسَّمَآءِ وَٱلۡأَرۡضِۗ إِنَّ ذَٰلِكَ فِي كِتَٰبٍۚ إِنَّ ذَٰلِكَ عَلَى ٱللَّهِ يَسِيرٞ ٧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지 못하느뇨. 실로 그것은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진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매우 쉬운 일이니라. [알-하즈: 70].

3- 의지(알마쉬아): 이 우주에서는 오직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وَرَبُّكَ يَخۡلُقُ مَا يَشَآءُ وَيَخۡتَارُ...﴾

그대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시며 선택하시느니라... [알-까사스: 68].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وَمَا تَشَآءُونَ إِلَّآ أَن يَشَآءَ ٱللَّهُ رَبُّ ٱلۡعَٰلَمِينَ ٢٩﴾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원할 수 없느니라. [앗-타크위르: 29].

4- 창조(알할끄):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의 행위와 실천이 선하든 악하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ٱللَّهُ خَٰلِقُ كُلِّ شَيۡءٖۖ وَهُوَ عَلَىٰ كُلِّ شَيۡءٖ وَكِيلٞ ٦٢﴾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아즈-주마르: 62].

이 네 단계는 다음의 시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식, 기록, 그분의 의지, 그리고 그분의 창조라. 그것은 곧 존재하게 하심과 형성하심이로다.

제3절: 이흐싼(선행/온전함):

이흐싼은 단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마치 그대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대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로 그분께서는 그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께서 경배하도록 하신 일들을 마치 자신이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광받으실 그분에 대한 완전한 경외심과 그분께

온전히 귀의하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경배 행위를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전통)에 부합하게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흐싼은 두 단계로 나뉘며, 이를 실천하는 자들은 두 경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직접 목격하듯 인식하는 단계이며, 이것이 두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는 종복이 마치 마음으로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믿음으로 빛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역(가이브)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실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진실성(이클라쓰)과 자아 성찰(무라까바)의 경지입니다. 이는 종복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굽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상기하며 행한다면 그는 지고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자입니다.

제4절: 아흘룻순나 왈 자마아의 기본 원리

약설:

첫째: 성서와 쑨나에 명시된 내용을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말도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교우들에 대해 마음과 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사후의 칼리파(계승자)가 아부 바크르, 그다음은 우마르, 그다음은 우쓰만, 그다음은 알리(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라고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가족(아흘룰 바이트)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자로 삼는 것이며, 특히 그들 중 의로운 자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넷째: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당함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인도와 안녕을 기원해야 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기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죄악을 명령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자 의무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악을 명령한다면 실로 그 일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정당한 일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가까운 종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이적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여섯째: 단순히 죄를 지었거나 대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끼블라를 향해 예배드리는 자들을 불신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카와리지파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믿음에 기초한

형제애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해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는 신앙인이나, 자신의 대죄로는 불온한 자(파씨끄)이다"라고 말합니다.

제2장: 경배 행위(이바다)에 관한 사항

제1절: 청결(따하라):

청결의 어원적 의미: 눈에 보이는 오물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불결함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적 의미: 불결한 상태(하다쓰)의 해소와 오물(나자쓰)의 제거입니다. 청결은 예배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이를 배우는 것은 종교의 가장 중대한 과업 중 하나로, 모든 무슬림이 이를 배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물의 종류:

1- 정화하는 물(따후르): 이를 통한 정화가 유효합니다. 본래 창조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물이거나, 빗물, 강물, 혹은 바닷물 같은 것입니다.

혹은 깨끗한 물질이 섞였더라도 그 물질이 물을 압도하지 않고 본래의 물이라는 이름을 잃게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불결한 물(나지쓰):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불결한 상태를 해소할 수 없으며, 오물을 제거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오물로 인해 그 색깔이나 냄새, 혹은 맛이 변질된 물을 말합니다.

둘째: 오물(나자싸):

오물이란 특정한 불결함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소변, 대변, 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신체, 장소, 혹은 의복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기본 원칙은 허용과 청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 불결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래, 인간의 땀, 당나귀의 땀 등은 오물이 아닙니다. 비록 더럽게 느껴질지라도 본질은 깨끗한 것입니다. 모든 오물은 더러운 것이지만,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오물인 것은 아닙니다.

오물의 정도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심각한 오물;

예를 들어 개가 핥은 그릇의 불결함입니다. 이를 정화하는 방법은 일곱 번 씻되, 그중 첫 번째는 흙으로 씻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벼운 오물:

의복 등에 묻은 젖먹이 남아의 소변 같은 것입니다. 이를 정화하는 방법은 물이 충분히 덮일 정도로 물을 뿌려주는 것이며, 문지르거나 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중간 불결함:

인간의 대소변이나 땅, 의복 등에 묻은 대부분의 오물입니다. 이를 정화하는 방법은 오물의 형체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 물이나 기타 세정 수단으로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오물임이 증명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의 소변과 대변.

2- 마디(쿠퍼액)와 와디(소변 후 분비물)[1].

3-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의 배설물.

4- 월경혈과 산후 출혈.

5- 개의 침.

6- 사체(죽은 동물), 단 다음은 예외입니다:

가- 죽은 사람의 시신.

나- 물고기와 메뚜기의 사체.

다- 파리, 개미, 벌 등 흐르는 피가 없는 곤충의 사체.

라- 죽은 동물의 뼈, 뿔, 발톱, 털, 깃털.

오물을 정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물 정화의 기본 원칙이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불결하거나 불결해진 대상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슬람법(샤리아)이 정한 방식입니다:

가- 죽은 동물의 가죽은 무두질을 통해

[1] (마디): 애무를 하거나 성관계를 떠올리고 원할 때, 혹은 무언가를 바라보는 등의 상황에서 분출되는 색깔 없는 묽은 액체입니다. 방울 형태로 나오며 때로는 배출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와디): 소변을 본 직후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나오는 하얗고 진한 액체입니다.

정화됩니다.

나- 개가 핥은 그릇의 정화: 일곱 번 씻되, 그중 첫 번째는 흙으로 씻어야 합니다.

다- 월경혈이 묻은 옷의 정화: 먼저 긁어낸 후 물로 비벼 빨고 헹구어 냅니다. 그 후에도 자국이 남는다면 무방합니다.

라- 여성의 긴 옷자락의 정화: 뒤따라 밟게 되는 청결한 땅에 의해 정화됩니다.

마- 젖먹이 남아의 소변이 묻은 옷은 물을 뿌려 정화하고, 여아의 소변은 물로 씻어내어 정화합니다.

바- 마디(쿠퍼액)가 묻은 곳은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합니다.

사- 신발 밑창의 정화: 청결한 땅에 문질러 닦아냅니다.

아- 대지의 정화: 해당 부위에 물을 한 양동이 붓거나, 햇볕이나 바람에 마를 때까지 둡니다. 오물의 흔적이 사라지면 정화된 것입니다.

셋째: 불결한 상태(무흐디쓰)에 있는 자에게

금지된 행위:

소(小)불결 혹은 대(大)불결 상태에 있는 자에게 금지되는 사항들입니다:

1- 의무 예배든 자발적 예배든 모든 예배.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분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لَا يَقْبَلُ اللَّهُ صَلَاةً بِغَيْرِ طُهُورٍ».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상태(따하라)가 아닌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노라.»[1]

2- 꾸란(무쓰하프)을 만지는 것.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암므르 빈 하즘에게 써 보내신 서신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لَا يَمَسُّ الْقُرْآنَ إِلَّا طَاهِرٌ».

«청결한 자(따히르) 외에는 아무도 꾸란을 만질

[1] 무슬림 수록, 번호 (224).

수 없노라.»[1]

3- 성전, 카으바의 타와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الطَّوَافُ بِالْبَيْتِ صَلَاةٌ، إِلَّا أَنَّ اللَّهَ أَبَاحَ فِيهِ الْكَلَامَ».

«성전의 타와프는 예배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을 허락하셨을 뿐이니라.»[2]

선지자(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그분에게 깃들기를)께서는 타와프를 위해 세정(우두)을 하셨으며,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올바르게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월경 중인 여성이 청결해질 때까지 성전을 타와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대(大)불결 상태(하다쓰 아크바르)에 있는 자에게 특별히 금지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

[1] 말리크의 『알-무왓따』(680번, 219번), 아드-다리미(312번), 압두르-라자크의 『무산나프』(1328번) 전승, 알-알바니가 『이르와 알-갈릴』(122번)에서 사히로 판정.

[2] 안-나사이(12808번), 아흐마드(15423번) 전승, 알-알바니가 《이르와 알-갈릴》(121번)에서 사히흐로 판정함.

같습니다:

1- 꾸란 낭송; 알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때문입니다: "자나바(대불결 상태)가 아닌 이상,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꾸란을 읽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노라."[1]

2- 우두 없이 성원(마쓰지드)에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يَـٰٓ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لَا تَقْرَبُواْ ٱلصَّلَوٰةَ وَأَنتُمْ سُكَـٰرَىٰ حَتَّىٰ تَعْلَمُواْ مَا تَقُولُونَ وَلَا جُنُبًا إِلَّا عَابِرِى سَبِيلٍ حَتَّىٰ تَغْتَسِلُواْ...﴾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때까지 예배에 다가가지 말라. 또한 길을 지나는 자가 아닌 한, 주누브(대불결 상태)일 때도 목욕재계를 할 때까지 예배에 다가가지 말라... [안-니사: 43].

그러므로 대불결 상태에 있는 자라도 우두를 했다면 성원에 머무는 것이 허용됩니다.

---

[1] 이븐 마자(594번), 이븐 히반(799번) 전승, 알-알바니가 '다이프 수난 앗-티르미디'(146번)에서 약하다고 평가함.

마찬가지로 대불결 상태에 있는 자가 성원에 앉지 않고 단지 그곳을 지나가기만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넷째: 용변을 볼 때의 예절:

용변을 볼 때 권장되는 사항들:

1- 야외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몸을 가리는 것.

2- 들어갈 때 전승된 두아(기원)를 말하는 것.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مِنَ الْخُبْثِ وَالْخَبَائِثِ».

«오 하나님, 실로 저는 남녀 악마들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1]

용변을 볼 때 의무 사항들:

1- 소변으로부터 몸과 옷을 깨끗이 하는 것(소변이 튀지 않게 조심하는 것).

2- 아우라(가려야 할 신체 부위)를 가리는 것.

용변을 볼 때 금지되는 사항들:

[1] 알-부카리(142번), 무슬림(122번) 전승.

1- 끼블라를 향하거나 등지는 것.

2- 사람들의 길목이나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것.

3- 고인 물에 소변을 보는 것.

용변을 볼 때 혐오되는 사항들:

1- 용변 중에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

2- 오른손으로 이쓰틴자(물로 닦기)와 이쓰티즈마르(돌이나 휴지 등으로 닦기)를 하는 것.

3- 용변 중에 말하는 것, 특히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다섯째: 이쓰틴자와 이쓰티즈마르의 규정:

이쓰틴자: 물을 사용하여 전후 두 배설구에서 나온 배설물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쓰티즈마르: 돌이나 휴지 등 물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전후 두 배설구에서 나온 배설물의 흔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쓰티즈마르에 사용하는 물건의 조건:

1- 허용된(무바흐) 것이어야 합니다.

2- 청결한(따히르) 것이어야 합니다.

3-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4- 뼈나 동물의 배설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존중받아야 할 물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종이 등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하에 이쓰티즈마르만으로 충분히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1- 배설물이 평소 묻는 부위를 넘어 번지지 않아야 합니다.

2- 최소 세 개의 돌(또는 그를 대체하는 것)로 깨끗해질 때까지 닦아야 합니다.

여섯째: 우두의 규정:

다음 세 가지 경배 행위를 위해서는 우두가 필수입니다:

1- 예배; 의무 예배이든 자발 예배이든 모두 해당합니다.

2- 꾸란(무쓰하프)을 만지는 것.

3- 따와프.

세정(우두)의 조건:

1- 무슬림일 것.

2- 제정신일 것(이성유무)

3-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일 것.

4- 의도(니야): 그 자리는 마음이며, 혀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혁신(비드아)입니다. 우두를 하려는 자는 이미 마음에 의도를 품은 것입니다. 다만 열을 식히거나 깨끗이 씻을 목적으로 우두 부위를 씻는 것은 우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의도의 유지: 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그 의도를 중단할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6- 우두를 의무화하는 원인(배설 등)이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단, 배설물이 계속 새는 병(실금 등)을 앓는 자나 이쓰티하다(비정상 출혈)를 겪는 여성은 예외입니다.

7- 소변이나 대변을 본 자는 우두 전에 이쓰틴자 또는 이쓰티즈마르를 먼저 해야 합니다.

8- 물이 정화(따후르)의 속성을 가져야 하며 허용된 물이어야 합니다.

9- 물이 피부에 닿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10- 앞서 언급한 불결한 상태가 지속되는 병을 앓는 자의 경우, 예배 시간이 시작된 후에 우두를 해야 합니다.

우두의 의무 요소들:

1- 얼굴 씻기, 입 헹구기와 코로 물 들이마시기도 이에 포함됩니다.

2- 양손을 팔꿈치까지 씻기.

3- 머리 전체를 닦기, 귀도 이에 포함됩니다.

4- 양발을 복사뼈까지 씻기.

5- 우두 부위들의 순서를 지키기.

6- 연속성: 각 부위를 씻는 사이에 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두의 순서와 방법:

1- 타쓰미야(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함).

2- 양 손바닥을 세 번 씻습니다.

3- 얼굴을 세 번 씻으며, 입 헹구기와 코로 물 들이마시기도 이에 포함됩니다.

4- 양손을 팔꿈치까지 세 번 씻되, 오른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왼손을 씻습니다.

5- 머리와 귀를 닦아냅니다.

6- 양발을 복사뼈까지 세 번 씻되, 오른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왼발을 씻습니다.

우두를 깨뜨리는 것들:

1- 전후 두 배설구에서 나오는 것들. 예: 소변, 방귀, 대변.

2- 몸에서 나오는 심각하게 불결한 것들.

3- 수면 등으로 정신을 잃는 것.

4- 가리개 없이 맨손으로 전후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

5- 낙타 고기를 먹는 것.

6- 이슬람에서 배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무슬림들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일곱째: 가죽 양말(쿠프)과 일반 양말(자우라브) 위를 닦는 규정:

1- 가죽 양말(쿠프): 발에 신는 가죽이나 그와 유사한 재질의 신발입니다.

2- 일반 양말(자우라브): 발에 신는 양모나 면, 혹은 그와 유사한 재질의 양말입니다.

그 위를 닦는 것이 허용되기 위한 조건들:

1- 완전한 청결 상태(우두를 한 후)에서 그것들을 신어야 합니다.

2- 발과 복사뼈를 모두 가려야 합니다.

3- 두 가지 모두 그 자체가 청결해야 합니다.

4- 정해진 기한 내에 닦아야 합니다.

5- 우두 시에만 허용되며, 대의무 목욕(구슬) 시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가죽 양말 등이 이슬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합니다. 약탈한 것이거나 남성에게 금지된 실크 재질이라면 그 위를 닦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지된 물건으로는 율법의 완화 혜택(루크싸)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닦는 기간:

거주자(무낌)는 하루 밤낮(24시간)이며, 여행자는 3일 밤낮(72시간)입니다.

닦는 방법:

손에 물을 적신 뒤, 양말이나 가죽 양말의 발등 부분을 발가락에서 정강이 방향으로 한 번 닦아냅니다.

닦는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들:

1- 닦는 기한이 끝나는 것.

2- 양말 두 쪽 모두, 혹은 한 쪽이라도 벗는 것.

3- 대불결 상태(하다쓰 아크바르)가 발생하는 것.

가죽 양말 위를 닦는 규정의 성격:

그것은 율법적 완화(루크싸)이며, 이를 행하는 것이 양말을 벗고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우수합니다.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화를 취하는 것이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본받는 것이고, 혁신자(비드아를 행하는 자)들과 차별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부목, 붕대, 밴드 위를 닦는 규정:

부목(자바이르): 깁스나 나무막대 등 골절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묶는 것입니다.

붕대(아싸이브): 상처, 타박상, 화상 부위를 묶는 천 등을 말합니다.

밴드(루수끄): 치료 목적으로 상처나 종기 등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 위를 닦는 것에 대한 규정:

허용됨: 그것들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단, 필요 부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금지됨: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거나, 떼어내도 불편함이나 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를 닦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위를 닦는 법:

그 주변 부위는 씻고, 그 위는 모든 면을 닦아냅니다. 단, 우두 부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닦지는 않습니다.

여덟째: 건조 세정(타얌뭄) 규정:

타얌뭄: 정화를 목적으로 흙을 사용하여 특정한 방법으로 얼굴과 양손을 닦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

물이 없거나 물을 사용할 능력이 없을 때, 우두나 대세정(구슬)을 대신하여 반드시 타얌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규정된 지혜:

타얌뭄은 무함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공동체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는 이전 공동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베푸신 관대함이자 그분께서 내리신 은혜입니다.

타얌뭄(건조 세정)이 허락되는 경우:

1- 물이 없을 때. 거주지이든 여행 중이든 관계없이 물을 찾았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 식수나 요리에 필요한 물만 가지고 있을 때. 만약 그 물로 정화하면 자신이나 타인, 또는 돌보아야 할 가축이 갈증으로 고통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3- 물을 사용할 경우 질병이 악화되거나 치유가 지연되는 등 신체에 해가 될까 봐 두려울 때입니다.

4-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어 물을 사용할 능력이

없고 우두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며, 예배 시간이 지나버릴까 봐 두려운 경우입니다.

5- 물을 사용하면 심각한 추위로 해를 입을까 두려운데 물을 데울 수단이 없는 경우, 타얌뭄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건조 세정(타얌뭄)의 방법:

손가락을 벌린 채로 흙을 한 번 내리친 후, 손가락 안쪽으로 얼굴을 닦고, 손바닥으로 양손을 닦아 얼굴과 양손 전체에 고루 묻게 합니다.

건조 세정(타얌뭄)을 무효화하는 것들:

1- 물이 없어서 타얌뭄을 한 경우 물을 발견했을 때. 또는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타얌뭄을 한 경우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2- 우두를 깨뜨리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의무목욕(구슬)을 요하는 대불결 상태(주나바), 월경, 산후 출혈이 발생했을 때.

물과 타얌뭄 모두 사용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

물과 흙이 모두 없거나, 질병 등으로 피부에

물이나 흙을 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우두나 타얌뭄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도 그 능력을 벗어나는 짐을 지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후 물이나 흙을 구했거나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미 드린 예배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다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فَٱتَّقُواْ ٱللَّهَ مَا ٱسۡتَطَعۡتُمۡ...﴾

...그러니 너희는 능력껏 하나님을 경외하라... [앗-타가분: 16],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إِذَا أَمَرْتُكُمْ بِأَمْرٍ فَأْتُوا مِنْهُ مَا اسْتَطَعْتُمْ».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거든, 너희 능력껏 그것을 행하라.»[1]

[1] 알-부카리(7288번), 무슬림(6066번) 전승.

참고사항: 대불결 상태(주나바)로 인해 타얌뭄을 했던 자가 물을 발견했다면, 대의무 목욕(구슬)을 해야 합니다.

아홉째: 월경과 산후 출혈의 규정:

첫째: 생리: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자궁 깊은 곳에서 배출되는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출혈입니다. 대개 한 달에 6일에서 7일 정도 발생하며,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체질에 따라 여성의 주기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생리 중인 여성에 관한 규정:

1- 월경 중인 여성은 예배를 드리거나 단식을 할 수 없으며, 이를 행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월경에서 청결해진 후에는 단식은 보충하되 예배는 보충하지 않습니다.

3- 그녀는 성전(카바)을 순회(따와프)할 수 없다. 꾸란을 낭송하지 아니하며, 성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4- 출혈이 멈추고 대의무 목욕(구슬)을

할 때까지 남편이 아내의 성기에 관계를 맺는 것은 금지됩니다.

5- 남편은 성기 관계를 제외한 입맞춤, 접촉 등으로 월경 중인 아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아내가 월경 중일 때 남편이 이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결은 피가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가 멈추면 그녀는 청결해진 것이고 월경 기간이 끝난 것이므로 반드시 대의무 목욕(구슬)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월경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것들을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결해진 이후에 탁한 분비물이나 노란색 분비물을 보더라도 이는 무시합니다.

둘째: 산후 출혈:

그것은 출산과 그 이후 자궁에서 배출되는 출혈이며, 임신 기간 동안 갇혀 있던 피의 잔여물입니다.

산후 출혈은 허용되는 사항에 있어서 월경과

동일합니다. 성기를 제외한 부위에서 남편이 즐거움을 취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금지되는 사항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기 관계, 단식, 예배, 이혼, 따와프, 꾸란 낭송, 성원에 머무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피가 멈추었을 때 대의무 목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월경과 같습니다.

월경 중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단식은 보충해야 하지만 예배는 보충하지 않습니다.

최대 기간은 40일입니다. 만약 40일이 되기 전에 산후 출혈이 멈춘다면 산후 출혈 기간이 끝난 것이므로, 목욕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산후 출혈로 인해 금지되었던 것들을 다시 수행합니다.

제2절: 예배:

첫째: 아단과 이까마의 규정:

아단은 선지자의 이주(히즈라) 첫해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알기 어려워하자 이를 알릴 표식을 정하기

위해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압둘라 빈 자이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꿈에서 이 아단을 보았으며 계시가 이를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단: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까마: 예배를 곧 시작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남성 무리에게 아단과 이까마는 의무 예배에 대한 공동의무(파르드 키파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슬람의 뚜렷한 상징 중 하나이므로 이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단의 선결 조건:

1- 무앗단(아잔을 하는 사람)은 남성이어야 합니다.

2- 아단은 순서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3- 아단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아단은 예배 시간이 시작된 후에 울려야 합니다, 이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파즈르 예배와 금요일 합동 예배의 첫 번째 아단이다.

아단의 권장사항(순나):

1- 두 손가락을 귀에 넣습니다.

2-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아단을 하는 것.

3- '하이야 알랏솰라', '하이야 알랄 팔라흐'를 할 때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것.

4-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

5- 아단의 구절들을 천천히 외치되, 지나치게 늘리거나 끌지 않는 것.

6- 각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시 멈추는 것.

7- 아잔을 할 때 끼블라를 향하는 것.

아단은 총 15문장입니다. 이는 빌랄(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앞에서 항상 행해진 방식입니다.

아단의 문구:

(알라후 아크바르 -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4번.

(아쉬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이 없음을 증언한다): 2번.

(아쉬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쑬룰라 -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한다): 2번.

(하이야 알랏솰라 - 예배를 향해 오라): 2번.

(하이야 알랄 팔라흐 - 성공을 향해 오라): 2번.

그 후 (알라후 아크바르): 2번.

마지막으로 (라 일라하 일랄라) 1번으로 끝맺습니다.

파즈르 아잔에서는 '하이야 알랄 팔라흐' 다음에 (앗솰라투 카이룸 미난 나움 - 예배가 잠보다 낫다)을 2번 추가합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대개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까마는 11문장이며 이를 빠르게 외칩니다. 이까마는 이미 참석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천천히 외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까마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2번.

(아쉬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1번.

(아쉬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쑬룰라): 1번.

(하이야 알랏솰라): 1번.

(하이야 알랄 팔라흐): 1번.

(까드 까마팃솰라 - 예배가 곧 시작된다): 2번.

(알라후 아크바르): 2번.

(라 일라하 일랄라): 1번.

아단을 듣는 사람은 무앗딘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하이야 알랏솰라)와 (하이야 알랄 팔라흐)에서는 (라 하울라 와 라 꾸와타 일라 빌라 -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اللَّهُمَّ رَبَّ هَذِهِ الدَّعْوَةِ التَّامَّةِ، وَالصَّلَاةِ القَائِمَةِ، آتِ مُحَمَّدًا الوَسِيلَةَ وَالفَضِيلَةَ، وَابْعَثْهُ مَقَامًا مَحْمُودًا الَّذِي وَعَدْتَهُ، إِنَّكَ لَا تُخْلِفُ الْمِيعَادَ».

«오 하나님, 이 온전한 부름과 세워진 예배의 주님이시여. 무함마드에게 가장 높은 지위(와씰라)와 탁월함을 주시고, 당신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칭송받는 자리에 그를 부활시켜 주소서.

실로 당신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나이다.»[1]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رَضِيتُ بِاللَّهِ رَبًّا، وَبِالْإِسْلَامِ دِينًا، وَبِمُحَمَّدٍ ﷺ نَبِيًّا».

«저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슬람을 종교로,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모심에 만족합니다.»[2].

아단이 울린 후 정당한 이유나 돌아올 의도 없이 성원을 나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두 예배를 합하여 드릴 경우에는 한 번의 아단으로 충분하며, 각 예배마다 이까마를 행합니다.

둘째: 예배의 지위와 덕목:

예배(솰라흐)는 신앙 고백(샤하다) 다음으로 이슬람에서 가장 확고한 기둥입니다. 예배는 아주 특별한 위상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

[1] 셰이크 압둘 아지즈 빈 바즈(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는 자신의 『마즈무으 파타와』(29/ 141)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바이하끼가 훌륭한 계보로 자비르를 통해 '당신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뒤에 '실로 당신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나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2]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2635).

승천하신 미으라즈의 밤에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에게 직접 의무로 부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배의 위대함과 확고한 의무성, 그리고 권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미덕과 각 개인에 대한 의무에 관하여 많은 하디스가 전해져 왔으며, 예배가 의무라는 것은 이슬람 종교에 있어 지극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배가 확고한 의무임을 입증하는 성서와 순나의 많은 본문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إِنَّ ٱلصَّلَوٰةَ كَانَتۡ عَلَى ٱلۡمُؤۡمِنِينَ كِتَٰبٗا مَّوۡقُوتٗا﴾

실로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지켜야 할 의무이니라. [안-니사: 103]. 즉,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명시하신 정해진 시간에 부과된 의무라는 뜻입니다.

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مَا أُمِرُوا إِلَّا لِيَعْبُدُوا اللَّهَ مُخْلِصِينَ لَهُ الدِّينَ حُنَفَاءَ وَيُقِيمُوا الصَّلَاةَ...﴾

그들은 오직 종교를 하나님께 순수히 바치며 순결한 신앙인(후나파)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를 확립하도록 명령받았을 뿐이니라... [알-바이이나: 5].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فَإِنْ تَابُوا وَأَقَامُوا الصَّلَاةَ وَآتَوُا الزَّكَاةَ فَإِخْوَانُكُمْ فِي الدِّينِ...﴾

그러나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확립하며 자카(의무 희사)를 바친다면 그들은 종교 안에서 너희의 형제들이라... [앗-타우바: 11].

4- 자비르(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إِنَّ بَيْنَ الرَّجُلِ وَبَيْنَ الشِّرْكِ وَالْكُفْرِ تَرْكُ الصَّلَاةِ».

«한 사람과 쉬르크(다신교) 및 쿠프르(불신)를 가르는 기준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라.»[1]

5- 부라이다(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لعَهْدُ الَّذِي بَيْنَنَا وَبَيْنَهُمُ الصَّلَاةُ، فَمَن تَرَكَهَا فَقَدْ كَفَرَ».

«우리와 그들(불신자들) 사이의 언약은 바로 예배라. 그러므로 이를 포기하는 자는 이미 불신자가 된 것이라.»[2]

학자들은 예배의 의무를 부정하는 자가 불신자라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게으름이나 태만함으로 예배를 포기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신자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견해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사히흐 하디스와 이

[1] 무슬림 전승, 번호 (82).

[2] 앗-티르미디(265번) 전승. 그는 '하산 사히흐 가립'이라고 하였으며, 알-알바니가 『사히흐 앗-타르깁 왓-타르힙』에서 이를 사히흐로 판정하였다.

문제에 대한 교우들(사하바)의 합의(이즈마으)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예배의 조건:

1- 그 시간의 시작: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إِنَّ ٱلصَّلَوٰةَ كَانَتۡ عَلَى ٱلۡمُؤۡمِنِينَ كِتَٰبٗا مَّوۡقُوتٗا﴾

...실로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지켜야 할 의무이니라. [안-니사]. 즉, 한정된 시간에 부과된 의무라는 뜻입니다.

의무 예배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즈르: 새벽이 밝을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입니다.

나- 두흐르: 해가 정점을 지날 때부터 모든 사물의 그림자가 그 사물의 길이와 같아질 때까지입니다.

다- 아스르: 두흐르 시간이 끝난 후부터 해가 노랗게 물들 때까지이며, 불가피한 경우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라- 마그립: 해가 진 후부터 붉은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마- 이샤: 마그립 시간이 끝난 후부터 한밤중까지입니다.

2- 아우라(가려야 할 신체 부위)를 가리는 것:

이는 마땅히 덮어야 하고 드러내는 것이 흉하며 부끄러운 부위를 말합니다. 남성의 아우라는 배꼽부터 무릎까지입니다. 여성은 예배 중 얼굴을 제외한 모든 신체가 아우라입니다. 단, 마흐람(결혼할 수 없는 가까운 친척)이 아닌 외간 남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얼굴도 가려야 합니다.

3- 오물(나자싸)을 피하는 것:

오물이란 그 존재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특정한 불결함을 뜻합니다. 소변, 대변, 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신체, 장소, 의복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4- 끼블라를 향하는 것:

끼블라는 성스러운 성전(카으바)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기 때문에 끼블라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끼블라를 향하지 않은 예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حَيۡثُ مَا كُنتُمۡ فَوَلُّواْ وُجُوهَكُمۡ شَطۡرَهُۥ...﴾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의 얼굴을 그곳(성전)으로 향하게 하라... [알-바까라: 144].

5- 의도(니야):

어원적 의미로는 목적을 뜻하며, 율법적으로는 지고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경배 행위를 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는 마음이므로 혀로 소리 내어 말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비드아)입니다.

넷째: 예배의 기둥(아르칸):

이는 14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둥: 능력이 있을 경우 서서 예배드리는 것(끼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قُومُواْ لِلَّهِ قَٰنِتِينَ﴾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경건히 서라. [알바까라: 238], 그리고 이므란(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선지자로부터 전한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صَلِّ قَائِمًا، فَإِن لَمْ تَسْتَطِعْ فَقَاعِدًا، فَإِن لَمْ تَسْتَطِعْ فَعَلَى جَنْبٍ».

«서서 예배를 드리라.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앉아서 드리고,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옆으로 누워서 드리라.»[1]

만약 질병으로 인해 서 있을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앉거나 옆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병자 외에도 두려움에 떠는 자, 벌거벗은 자, 치료를 위해 서 있지 못하고 앉거나 누워야 하는 자 등도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서 예배드릴 수 없는 정식 이맘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일어서는 것이 면제됩니다. 이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뒤의 사람들도 이맘을 따라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발적 예배(나와필)의 경우에는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117).

서 있을 능력이 있더라도 앉아서 드리는 것이 허용되나, 그 보상은 서서 드리는 자의 보상과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둥: 예배 시작 시의 타크비라툴 이흐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ثُمَّ اسْتَقْبِلِ الْقِبْلَةَ، وَكَبِّرْ».

«그런 다음 끼블라를 향하고 타크비르를 하라.»[1]

그 문구는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 외의 다른 말로는 갈음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둥: 알-파티하(개경장) 낭송: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ا صَلَاةَ لِمَنْ لَمْ يَقْرَأْ بِفَاتِحَةِ الْكِتَابِ».

[1] 알-부카리(6251번), 무슬림(884번) 전승.

«꾸란의 개경장을 낭송하지 않은 자의 예배는 성립되지 않노라.»[1].

네 번째 필수 요소: 매 라카아에서의 루쿠으(허리 굽히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يَا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رْكَعُوا وَاسْجُدُوا...﴾

믿는자들이여 허리숙여 부복 하고...

[알-하지: 77].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기둥:

루쿠으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과, 그 이전처럼 똑바로 서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를 지속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예배를 잘못 드린 자에게 다음과

[1] 알-부카리(756번), 무슬림(872번) 전승.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ثُمَّ ارْفَعْ حَتَّى تَعْتَدِلَ قَائِمًا».

«그런 다음 몸을 일으켜 똑바로 설 때까지 자세를 바르게 하라.»[1]

일곱 번째 기둥: 일곱 부위로 쑤주드(엎드리기)를 하는 것:

그 일곱 부위란 이마와 코, 양손, 양무릎, 그리고 양발의 발가락들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أُمِرْنَا أَنْ نَسْجُدَ عَلَى سَبْعَةِ أَعْظُمٍ: الجَبْهَةِ، وَأَشَارَ بِيدِهِ عَلَى أَنْفِهِ، وَالكَفَّيْنِ، وَالرُّكْبَتَيْنِ، وَأَطْرَافِ القَدَمَيْنِ».

«우리는 일곱 개의 뼈로 쑤주드(부복)를 하도록 명령받았으니, 이마(그러면서 손으로 코를 가리키심), 양 손바닥, 양무릎, 그리고 양 발끝입니다.»[2]

여덟 번째 기둥: 쑤주드에서 몸을 일으키는

[1] 알-부카리(793번), 무슬림(398번) 전승.

[2] 알-부카리(812번), 무슬림(490번) 전승.

것과 두 번의 쑤주드 사이에 앉는 것: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쓰에 근거합니다:

«كَانَ النَّبِيُّ ﷺ إِذَا رَفَعَ رَأْسَهُ مِنَ السَّجْدَةِ، لَمْ يَسْجُدْ حَتَّى يَسْتَوِيَ جَالِسًا».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쑤주드에서 머리를 드신 후, 똑바로 앉은 자세를 취하기 전까지는 다음 쑤주드를 하지 않으셨노라.»[1]

아홉 번째 기둥: 모든 기둥(동작)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는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예배를 잘못 드린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حَتَّى تَطْمَئِنَّ».

«평온함을 느낄 때까지»[2]

두 기둥: 열 번째와 열한 번째:

---

[1] 무슬림 전승 (498).

[2] 알-부카리(724번), 무슬림(398번) 전승.

마지막 타샤흐후드와 그를 위해 앉는 자세: 이븐 마쓰우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선지자로부터 전한 하디쓰에 근거합니다:

«إِذَا صَلَّى أَحَدُكُمْ فَلْيَقُلْ: التَّحِيَّاتُ لِلَّهِ وَالصَّلَوَاتُ وَالطَّيِّبَاتُ، السَّلَامُ عَلَيْكَ أَيُّهَا النَّبِيُّ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السَّلَامُ عَلَيْنَا وَعَلَى عِبَادِ اللَّهِ الصَّالِحِينَ،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너희 중 누군가 예배를 드릴 때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 '모든 인사와 예배와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오 선지자여, 당신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깃들기를. 우리와 하나님의 의로운 종복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이 없음을 증언하며,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1]

열두 번째 기둥: 마지막 타샤흐후드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알-부카리(797번), 무슬림(402번) 전승.

«اللَّهُمَّ صَلِّ عَلَى مُحَمَّدٍ».

«오 하나님, 무함마드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소서.»[1] 이에 더해지는 부분은 순나(권장 사항)입니다.

열세 번째 기둥: 기둥(동작)들 간의 순서를 지키는 것: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항상 순서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صَلُّوا كَمَا رَأَيْتُمُونِي أُصَلِّي».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본 대로 예배를 드리라.»[2] 또한 예배를 잘못 드린 자에게 '숨마(그리고 나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순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열네 번째 기둥: 타쓸림(평화의 인사로 예배를 마침):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

[1]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839).

[2] 알-부카리 전승, 번호 (6008).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خِتَامُهَا التَّسْلِيمُ».

«그 끝맺음은 타쓸림이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تَحْلِيلُهَا التَّسْلِيمُ».

«예배 상태를 해제하는 것은 타쓸림이니라.»[1]

다섯째: 예배의 의무 요소들(와지바트):

그것은 여덟 가지입니다:

1- 예배 시작을 위한 타크비르(타크비라툴 이흐람)를 제외한 모든 타크비르.

2- 루쿠으 상태에서 '쑤브하나 랍비얄 아딤(위대하신 나의 주님께서는 완전무결하시다)'이라고 한 번 말하는 것. 세 번까지 늘리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완전함의 최소 기준입니다. 열 번까지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110).

3- 루쿠으에서 몸을 일으킬 때 이맘과 개별 예배자가 '싸미알라후 리만 하미다흐(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양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하는 것.

4- 루쿠으에서 일어나 바르게 섰을 때 '랍바나 와라칼 함드(우리 주님, 모든 찬양이 당신께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

5- 쑤주드 상태에서 '쑤브하나 랍비얄 아을라(가장 높으신 나의 주님께서는 완전무결하시다)'라고 한 번 말하는 것. 세 번까지 더하는 것이 권장사항(순나)입니다.

6- 두 번의 쑤주드 사이에 앉아 있을 때 '랍비그피르 리(주님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한 번 말하는 것. 그리고 세 번까지 더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7- 첫 번째 타샤흐후드. 즉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التَّحِيَّاتُ لِلَّهِ، وَالصَّلَوَاتُ وَالطَّيِّبَاتُ، السَّلَامُ عَلَيْكَ أَيُّهَا النَّبِيُّ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السَّلَامُ عَلَيْنَا وَعَلَى عِبَادِ اللَّهِ الصَّالِحِينَ،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모든 인사와 예배와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오 선지자여, 당신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깃들기를. 우리와 하나님의 의로운 종복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이 없음을 증언하며,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1]

8- 첫 번째 타샤흐후드를 위해 앉는 것.

여섯째: 예배의 권장 사항(순나):

예배의 순나는 그것을 생략하더라도 예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두 부분, 즉 말로 하는 순나와 행동으로 하는 순나로 나뉩니다.

첫째: 말로 하는 순나:

1- 예배 시작의 두아(두아 알이쓰티프타흐). 여러 문구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سُبْحَانَكَ اللَّهُمَّ وَبِحَمْدِكَ، وَتَبَارَكَ اسْمُكَ، وَتَعَالَى جَدُّكَ، وَلَا إِلَهَ غَيْرُكَ».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835).

«쑤브하나칼 라훔마 와비함디카, 와타바라카 쓰무카, 와타알라 잣두카, 와라 일라하 가이루카(오 하나님, 당신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당신의 이름은 축복받으셨으며, 당신의 존엄하심은 지극히 높으시며, 당신 외에 경배받을 대상은 없나이다).»[1]

2- 알파티하 낭송 전의 이쓰티아다(보호를 구함). 즉, '아우두 빌라히 미나쉬 샤이따니르 라짐(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나이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 낭송하기 전에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바쓰말라)를 낭송하기, 즉, '비쓰밀라 히르라흐마 니르라힘(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 루쿠으와 수주드에서 타스비흐를 한 번을 초과하여 반복하는 것.

5- 한 번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1] 알-부카리(743번), 무슬림(399번) 전승.

«رَبِّ اغْفِرْ لِي».

'랍비그피르 리(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두 번 엎드려 예배하는 사이입니다.

6-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مِلْءَ السَّمَاوَاتِ، وَمِلْءَ الْأَرْضِ، وَمِلْءَ مَا بَيْنَهُمَا، وَمِلْءَ مَا شِئْتَ مِنْ شَيْءٍ بَعْدُ».

«하늘을 가득 채우고 땅을 가득 채우며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가득 채우며 그 후 당신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가득 채우십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 후에는:

«رَبَّنَا ولَكَ الحَمْدُ».

«저희의 주님이시여! 찬미받으실 당신이십니다.» '랍바나 와라칼 함드'[1]

7- 알파티하 장 이후에 추가로 꾸란 구절을 낭송하는 것.

8-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اللَّهُمَّ إِنِّي أَعُوذُ بِكَ مِنْ عَذَابِ جَهَنَّمَ، وَمِنْ عَذَابِ الْقَبْرِ، وَمِنْ فِتْنَةِ الْمَحْيَا

[1]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266).

وَالْمَمَاتِ، وَمِنْ فِتْنَةِ الْمَسِيحِ الدَّجَّالِ».

«오 하나님, 저는 지옥의 형벌과 무덤의 형벌, 삶과 죽음의 시련, 그리고 닷잘(적그리스도)의 시련으로부터 당신께 보호를 구하나이다.»[1] 마지막 타샤흐후드에서 이에 더하여 하는 두아.

둘째: 행동으로 하는 순나:

1- 다음 네 군데에서 양손을 어깨나 귀 높이까지 올리는 것:

가- 타크비라툴 이흐람을 할 때.

나- 루쿠으를 할 때.

다- 루쿠으에서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라- 세 번째 라카아로 일어설 때.

2- 루쿠으 전과 후 서 있는 자세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어 가슴 위에 두는 것.

3- 시선을 부복(수주드)할 곳에 둡니다.

4- 수주드 중에 윗팔을 옆구리에서 떼는 것.

5- 두 번의 수주드를 하는 동안 배를 허벅지에서 뗍는 것.

[1] 무슬림 전승, 번호 (588).

6- 3라크아 및 4라크아 예배의 마지막 타샤후드를 제외한 예배의 모든 앉는 자세에서는 이프티라쉬(왼발을 눕혀 그 위에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7- 3라크아 또는 4라크아 예배의 마지막 타샤흐후드에서 아타와르루크(왼발을 오른쪽 아래로 빼고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일곱째: 예배의 절차:

1-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실 때 끼블라를 향하시고, 양손을 들어 손바닥 안쪽이 끼블라를 향하게 한 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للهُ أَكْبَرُ».

«알라후 아크바르.»

2-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고 가슴 위에 두셨습니다.

3- 그런 다음 시작의 두아(이쓰티프타흐)를

하셨는데, 항상 한 가지 종류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입증된 어떠한 시작의 두아를 사용해도 허용되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سُبْحَانَكَ اللَّهُمَّ وَبِحَمْدِكَ، وَتَبَارَكَ اسْمُكَ، وَتَعَالَى جَدُّكَ، وَلَا إِلَهَ غَيْرُكَ».

«오 하나님, 당신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당신의 이름은 축복받으셨으며, 당신의 존엄하심은 지극히 높으시며, 당신 외에 경배받을 대상은 없나이다.»

4-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أَعُوذُ بِاللَّهِ مِنَ الشَّيْطَانِ الرَّجِ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나이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5- 그 후 개경장을 낭송하고, 낭송을 마치면 "아민"이라고 말합니다.

6- 그 뒤에는 원하는 꾸란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파즈르 예배와 마그립 예배, 이샤 예배의 첫 두 라카앗에서는 소리 내어 낭송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소리 내지 않고 낭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서 첫 번째 라크아를 두 번째보다 더 길게 행합니다.

7- 그 다음, 시작(이스티프타흐) 때 들어 올렸던 것처럼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루쿠으(허리 굽히기)를 합니다, 손가락을 벌린 채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단단히 잡으며, 등을 곧게 펴고 머리를 등과 수평이 되게 하여 들어 올리거나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سُبْحَانَ رَبِّيَ الْعَظِيمِ» مرةً.

«쑤브하나 랍비얄 @아딤» 1번. 앞서 언급했듯이, 완전함의 최소 기준은 3번입니다.

8- 이어서 머리를 들어 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سَمِعَ اللَّهُ لِمَنْ حَمِدَهُ».

«싸미알라후 리만 하미다흐» 루쿠으를 할 때 들어 올리는 것과 똑같이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9- 완전히 선 상태가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اللَّهُمَّ رَبَّنَا وَلَكَ الْحَمْدُ، حَمْدًا كَثِيرًا طَيِّبًا مُبَارَكًا فِيهِ، مِلْءَ السَّمَاءِ، وَمِلْءَ الْأَرْضِ، وَمِلْءَ مَا بَيْنَهُمَا، وَمِلْءَ مَا شِئْتَ مِنْ شَيْءٍ بَعْدُ، أَهْلَ الثَّنَاءِ وَالْمَجْدِ، أَحَقُّ مَا قَالَ الْعَبْدُ، وَكُلُّنَا لَكَ عَبْدٌ، لَا مَانِعَ لِمَا أَعْطَيْتَ، وَلَا مُعْطِيَ لِمَا مَنَعْتَ، وَلَا يَنْفَعُ ذَا الْجَدِّ مِنْكَ الْجَدُّ» .

«오 하나님 우리 주님, 모든 찬양이 당신께 있나이다. 풍성하고 선하며 축복받은 찬양으로 하늘을 채우고, 대지를 채우며, 그 사이를 채우고, 그 후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채울 만큼 찬양하나이다. 오, 찬미와 영광의 주인이시여. 종복이 한 말 중 가장 진실된 것이며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복이니이다. 당신께서 주신 것을 막을 자 없고, 당신께서 막으신 것을 줄 자가 없으며, 부유한 자의 부유함도 당신의 처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1] 이 반듯하게 선 자세를 길게 유지합니다.

10- 그 다음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엎드려 수주드를 합니다, 두 손을 들어 올리지

[1] 아부 다우드 전승, 번호 (5168).

않으며, 이마, 코, 양손, 양 무릎, 그리고 양 발끝을 바닥에 대고 수주드(부복)를 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끼블라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그는 엎드려 예배함에 있어 자세를 반듯하게 합니다. 이마와 코를 땅에 확고히 밀착시키며, 두 손바닥으로 지탱하고, 두 팔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윗팔을 옆구리에서 떼며, 배를 허벅지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를 그의 종아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며, 그리고 수주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سُبْحَانَ رَبِّيَ الأَعْلَى».

«쑤브하나 랍비얄 아을라» 한 번, 앞서 언급했듯이, 완전함의 최소 기준은 3번입니다. 그리고 전승된 바에 따라 두아를 합니다.

11- 그런 다음 머리를 들어 올리며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왼발을 눕혀 그 위에 앉고, 오른쪽 발바닥은 세웁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놓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اللَّهُمَّ اغْفِرْ لِي، وَارْحَمْنِي، وَاجْبُرْنِي، وَاهْدِنِي، وَارْزُقْنِي».

«하나님이시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십시오.»[1].

12- 그 후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수주드를 하고,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행합니다.

13- 그 후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고, 무릎과 허벅지에 의지하여 발 앞부분으로 일어섭니다.

14- 완전히 일어선 후에 꾸란 낭송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라크아는 첫 번째 라크아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15- 그 후 첫 번째 타샤후드를 위해 두 수주드 사이에 앉았던 것과 같이 왼발을 눕혀 그 위에 앉습니다, 오른손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손을 왼쪽 허벅지 위에 놓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운뎃손가락 위에 두어 고리

[1]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284).

모양을 만듭니다, 집게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것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التَّحِيَّاتُ لِلَّهِ وَالصَّلَوَاتُ وَالطَّيِّبَاتُ، السَّلَامُ عَلَيْكَ أَيُّهَا النَّبِيُّ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السَّلَامُ عَلَيْنَا وَعَلَى عِبَادِ اللَّهِ الصَّالِحِينَ،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모든 인사와 예배와 좋은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시여! 당신께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깃들기를. 저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량한 종복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저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그분은 홀로이시고 동반자가 없으심을 증언하며 저는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이 앉은 자세를 짧게 하셨습니다.

16- 그 후 '알라후 아크바르'를 말하며 일어나 세 번째와 네 번째 라크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두 라크아보다 짧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에서 꾸란의 개경장을 낭송합니다.

17- 그런 다음 마지막 타샤후드에서는 타와르루크(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는

자세)로 앉습니다, 타와루크는 왼발을 눕혀 오른쪽 옆으로 빼내며, 오른쪽 발바닥은 세우고 엉덩이를 바닥에 대는 것입니다.

18- 그 후 마지막 타샤후드를 행하는데, 이는 첫 번째 타샤후드와 같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اللَّهُمَّ صَلِّ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كَمَا صَلَّيْتَ عَلَى آلِ إِبْرَاهِيمَ، إِنَّكَ حَمِيدٌ مَجِيدٌ، وَبَارِكْ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كَمَا بَارَكْتَ عَلَى آلِ إِبْرَاهِيمَ، إِنَّكَ حَمِيدٌ مَجِيدٌ».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따르던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따르던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무함마드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실로 당신께서는 가장 영광되신 분이시며 가장 영예스러우신 분이십니다.»

19- 지옥의 고통, 무덤의 고통, 삶과 죽음의 유혹,

닷잘(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 경전과 순나에 명시된 기도로 두아(기도)를 합니다.

20- 그런 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타슬림(평안의 인사)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흐» 그리고 그의 왼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블라 방향으로 향한 채 타슬림(평안의 인사)을 시작하고, 고개를 완전히 돌리며 이를 마칩니다.

여덟째: 예배 시 혐오되는 사항들(마크루하트):

1- 필요 없이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2-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

3- 필요 없이 두 눈을 감는 것.

4- 수주드할 때 두 팔뚝을 바닥에 대는 것.

5- 필요 없이 입과 코를 가리는 것.

6- 대소변을 참는 상태이거나, 먹고 싶은 음식이 차려진 상태에서의 예배.

7- 수주드(부복)의 흔적으로 이마와 코에 묻은 것을 닦아내는 것. 예배를 마친 후에 이를 닦아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8- 필요 없이 서 있을 때 벽이나 그와 같은 것에 기대는 것.

아홉 번째: 예배를 무효화하는 것들:

1- 먹고 마시는 것.

2- 예배와 무관한 말을 하는 것.

3- 웃음과 소리 내어 웃는 것.

4- 필수 요소나 의무 사항 중 하나를 고의로 생략하는 것.

5- 고의로 필수 요소 또는 라카아를 추가하는 것.

6- 이맘보다 먼저 고의로 쌀람을 하는 것.

7- 정당한 이유 없이 예배와 무관한 동작을 연속적으로 많이 하는 것.

8- 우두 상태가 깨지는 것, 고의로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 불가피한 이유 없이 몸을 끼블라(예배 방향)에서 크게 돌리는 것, 의도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예배의 필수 조건 중 하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수주드 알-사흐우(망각의 수주드):

싸흐우란 잊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도 예배 중에 잊으신 적이 있으니, 잊는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잊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온전한 은총이자 종교의 완성을 위함이었으니, 잊음이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제정된 바를 그분을 따라 실천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망각의 수주드(부복)가 규정된 원인:

1- 첫번째 경우:

예배 중의 추가는 행동의 추가이거나 말의 추가입니다:

가- 행동의 추가: 만약 그것이 앉아야 할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일어서야 할 자리에서 앉거나, 또는 루꾸우 나 쑤주드를 추가하는 등 예배 행위 중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라면, 이를 실수로 행했을 때 잊음의 쑤주드를 합니다.

나- 말의 추가: 루꾸우 나 쑤주드 중에 꾸란을 낭송하는 것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망각의 쑤주드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두 번째 경우:

실수로 예배에서 무언가를 누락한 경우이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가- 기둥(루큰)의 누락: 만일 누락한 기둥이 타크비라툴 이흐람이라면 예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잊음의 쑤주드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타크비라툴 이흐람이 아닌 루쿠우 나 쑤주드 같은 기둥을 누락했고, 다음 라크아의 낭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깨달았다면, 그는 의무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 해당 기둥과 그 이후의 행위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다음 라크아의 낭송을 시작한 후에야 누락 사실을 깨달았다면, 기둥이 누락된 해당 라크아는 무효가 되고 그 뒤의 라크아가 이를 대체하게 됩니다.

나- 의무 요소(와지브)의 누락: 첫 번째 타샤흐후드를 잊었거나 루쿠우에서의 타쓰비흐를 잊은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망각의 수주드(부복)를 합니다.

3- 세 번째 상태: 의심:

예: 두흐르 예배 중에 3라크아를 드렸는지 아니면 4라크아를 드렸는지 의심이 든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가- 만일 어느 한쪽이 더 유력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행하고 망각의 쑤주드를 합니다.

나- 만일 어느 쪽도 더 유력하지 않다면, 확신할 수 있는 것(적은 수)을 바탕으로 행하고 잊음의 쑤주드를 합니다.

만약 예배가 끝난 후에 의심이 들거나, 평소에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의심은 무시합니다.

유익한 정보: 타쓸림 전에 망각의 쑤주드를 하는 경우는 누락이 발생했거나, 의심이 들었으나 어느 쪽도 유력하지 않을 때입니다. 타쓸림 후에 잊음의

쑤주드를 하는 경우는 무언가가 추가되었거나, 의심이 들어 더 유력한 쪽에 따라 예배를 진행했을 때입니다. 이 문제와 관해서는 율법의 너그러움이 적용됩니다(지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한 번째: 예배가 금지된 시간:

모든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특정 시간에는 예배가 금지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즈르 예배 이후부터 해가 떠올라 육안으로 보기에 지상에서 창 길이만큼 떠오를 때까지.

2- 해가 하늘 중앙에 떠서 기울어지기 전까지. 이는 금지된 시간 중 가장 짧습니다.

3- 아스르 예배 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는 금지된 시간 중 가장 깁니다.

금지된 시간에 드리는 것이 허용되는 예배:

1- 놓친 의무 예배의 보충(까다).

2- 특정한 사유가 있는 예배. 예: 성원 인사의 예배(타히야툴 마쓰지드), 타와프 2라크아 예배, 일식 및 월식 예배, 장례 예배(자나자).

3- 파즈르 예배 후의 파즈르 쑨나 예배 보충.

열두 번째: 합동 예배:

이는 이슬람의 위대한 상징 중 하나이며, 성원(마쓰지드)에서 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슬림들은 다섯 번의 의무 예배를 성원에서 다 함께 드리는 것이 가장 확고한 순종 행위이자 가장 위대한 경배 행위이며, 나아가 이슬람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라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1- 합동 예배의 규정:

능력이 있는 남성들은 5번의 예배를 성원에서 합동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거주할 때나 장거리 이동 시, 안전한 상황에서나 두려운 상황에서나 개개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합동 예배의 의무성은 성서와 쑨나, 그리고 세대를 거쳐 선조들로부터 후손들에게 이어진 무쓸림들의 실천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وَإِذَا كُنتَ فِيهِمْ فَأَقَمْتَ لَهُمُ ٱلصَّلَوٰةَ فَلْتَقُمْ طَآئِفَةٌ مِّنْهُم مَّعَكَ...﴾

그대가 그들 중에 있어 그들에게 예배를 주관하게 될 때, 그들 중 한 무리는 그대와 함께 서게 하라... [안-니사: 102]. 이 구절은 합동 예배의 확고한 의무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무슬림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에, 만일 이것이 의무가 아니었다면,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합동 예배를 저버리고 이에 대해 마지못해 게으름을 부리는 것은 위선자들의 가장 잘 알려진 속성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순나에는 많은 하디스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히흐 무슬림에 언급된 내용

أَنَّ رَجُلًا أَعْمَى قَالَ: يَا رَسُولَ اللَّهِ، لَيْسَ لِي قَائِدٌ يَقُودُنِي إِلَى الْمَسْجِدِ، فَسَأَلَهُ أَنْ يُرَخِّصَ لَهُ أَنْ يُصَلِّيَ فِي بَيْتِهِ، فَرَخَّصَ لَهُ، فَلَمَّا وَلَّى دَعَاهُ فَقَالَ: «هَلْ تَسْمَعُ النِّدَاءَ؟» قَالَ: نَعَمْ، قَالَ: «فَأَجِبْ».

시각 장애를 가진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도여, 저를 성원으로 이끌어 줄

안내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완화를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께서 이를 허락하셨으나,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그를 다시 불러 물으셨습니다. "아단의 소리가 들리느뇨?"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들리나이다." 그러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응답하라."[1]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그가 시각 장애인이고 그가 겪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원에 와서 대중 예배에 참석하고 아단에 응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합동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합동 예배에 합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이맘과 함께 한 라크아의 예배를 마쳤다면 그 대중 예배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 무슬림 전승, 번호 (1484).

«مَنْ أَدْرَكَ رَكْعَةً مِنَ الصَّلَاةِ فَقَدْ أَدْرَكَ الصَّلَاةَ».

«예배 중 한 라크아에 이른 자는 이미 예배에 이른 것이라.»[1].

3- 라카아(예배 단위)가 인정되는 기준:

라카아는 루쿠으에 참여함으로써 인정됩니다, 만약 예배에 지각한 사람(마스부끄)이 이맘이 루쿠으(허리 굽히기)를 하고 있을 때 합류하게 된다면: 반드시 서 있는 상태에서 예배 시작을 위한 타크비르(타크비라툴 이흐람)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루쿠으를 위해 다시 한 번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루쿠으를 합니다. 만일 서 있는 상태에서 예배 시작을 위한 타크비르(타크비라툴 이흐람)만 하더라도, 이는 루쿠으를 위한 타크비르를 대신하기에 충분합니다.

4- 합동 예배에 불참하는 것이 허락되는 정당한 이유:

1- 병환으로 인해 금요일 합동 예배 및 집단 예배에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

[1] 알-부카리(609번), 무슬림(602번) 전승.

2- 소변이나 대변을 참는 행위. 대소변을 참는 것은 예배 시의 경외심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신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3- 배가 고프거나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서 음식이 차려진 경우. 단, 이를 합동 예배에 불참하기 위한 습관이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4-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혹은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

열세 번째: 두려움의 예배(솰라툴 카우프):

두려움의 예배는 불신자들, 반역자들, 무력 도발자들과의 전투처럼 허용된 모든 전투 상황에서 규정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إِنۡ خِفۡتُمۡ أَن يَفۡتِنَكُمُ ٱلَّذِينَ كَفَرُوٓاْ...﴾

...불신하는 자들이 너희를 공격할까 두려울 때는... [안-니사(여성): 101], 전투가 허용된 나머지 자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유추합니다.

두려움의 예배(쌀라툴 카우프)의 성립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적이 전투가 허용된 자이어야 합니다.

2- 예배 중에 그들이 무슬림들을 공격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예배(솰라툴 카우프)의 방법:

그것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사흘(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أَنَّ طَائِفَةً صَفَّتْ مَعَ النَّبِي ﷺ، وَطَائِفَةً وِجَاهَ العَدُوِّ، فَصَلَّى بِالَّتِي مَعَهُ رَكْعَةً، ثُمَّ ثَبَتَ قَائِمًا، وَأَتَمُّوا لِأَنْفُسِهِمْ، ثُمَّ انْصَرَفُوا، وَصَفُّوا وِجَاهَ العَدُوِّ، وَجَاءَتِ الطَّائِفَةُ الأُخْرَى، فَصَلَّى بِهِمُ الرَّكْعَةَ الَّتِي بَقِيَتْ مِنْ صَلَاتِهِ، ثُمَّ ثَبَتَ جَالِسًا، وَأَتَمُّوا لِأَنْفُسِهِمْ، ثُمَّ سَلَّمَ بِهِمْ.

한 무리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대열을 갖추고 다른 무리는 적을 마주 보았노라. 선지자께서는 함께 있는 무리와 1라크아를 예배하신 후 일어선 채로 머무르셨고, 그들은 각자 예배를 마친 뒤 물러나 적을 마주 보며 대열을 갖추었노라. 그러자 다른 무리가 다가왔고, 선지자께서는 남은 1라크아를 그들과 함께 예배하신 후 앉은 채로 머무르셨으며,

그들은 각자 예배를 마쳤노라. 그런 다음 선지자께서 그들과 함께 타쓸림을 하셨노라.[1]

두려움의 예배(솰라툴 카우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슬람에서 예배의 중요성과 합동 예배의 중요성.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이 공동체에 대한 곤란함의 배제, 그리고 샤리아(이슬람법)의 관대함과 모든 시대 및 장소에 대한 적합성.

3- 이슬람법의 완벽성. 각 상황에 알맞은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넷째: 금요 예배(솨라툴 주무아):

첫째: 그 규정:

금요 예배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정착하며 사는 이성을 갖춘 성인 남성 무슬림 모두에게 부과된 개인 의무(파르드 아인)입니다.

[1] 알-부카리(4130번), 무슬림(842번) 전승.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يَٰٓأَيُّهَا ٱلَّذِينَ ءَامَنُوٓاْ إِذَا نُودِيَ لِلصَّلَوٰةِ مِن يَوۡمِ ٱلۡجُمُعَةِ فَٱسۡعَوۡاْ إِلَىٰ ذِكۡرِ ٱللَّهِ وَذَرُواْ ٱلۡبَيۡعَۚ ذَٰلِكُمۡ خَيۡرٞ لَّكُمۡ إِن كُنتُمۡ تَعۡلَمُونَ ٩﴾

믿는 자들이여, 금요일에 예배를 위한 아단이 울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으로 서둘러 가며 상행위를 멈추라. 만약 너희가 안다면 실로 그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라. [알-주무아: 9].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يَنْتَهِيَنَّ أَقْوَامٌ عَنْ وَدْعِهِمُ الْجُمُعَاتِ، أَوْ لَيَخْتِمَنَّ اللَّهُ عَلَى قُلُوبِهِمْ، ثُمَّ لَيَكُونُنَّ مِنَ الْغَافِلِينَ».

«사람들은 금요 예배를 빠지는 것을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봉인을 찍으실 것이요, 그 후 그들은 방관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1]

[1] 무슬림 전승, 번호 (865).

둘째: 금요합동 예배의 성립 선결 조건:

1) 시간: 그 시간은 낮 예배 시간과 같습니다. 시간 전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2) 무리가 참석해야 하며,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무리의 최소 인원은 3명입니다. 따라서 혼자이거나 2명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예배자들은 일반적인 건축 관례에 따라 지어진 집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이든 돌이든 진흙이든 그 밖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장소에 정주하지 않고 가축을 위해 풀을 찾아 이동하는 텐트나 천막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4) 예배 전에 두 번의 설교(쿠뜨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를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금요일 합동 예배 두 설교의 필수 요소:

1- 하나님을 찬양함과 신앙 고백(샤하다).

2-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한 축원.

3- 하나님을 경외(타끄와)할 것을 당부함.

4- 꾸란의 일부를 낭송함.

5- 교훈(마우이다).

넷째: 금요일 합동 예배의 두 설교 시 권장 사항:

1- 민바르(설교단) 위에서 설교하는 것.

2- 두 설교 사이에 가볍게 앉아 구분을 두는 것.

3- 그 둘 모두에서 무슬림들과 그들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4- 설교를 짧게 하는 것.

5- 설교자(카띠브)가 민바르에 오를 때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것.

다섯째: 금요일의 권장 사항들:

1- 미쓰와크(양치 나무)를 사용하는 것.

2- 향수가 있다면 몸에 바르는 것.

3- 금요 예배를 위해 일찍 나서는 것.

4- 탈것을 타지 않고 성원까지 걸어가는 것.

5- 이맘에게 가까이 가는 것.

6- 기도 하는 것

7- 알-카흐프(동굴) 장 낭송.

8-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한 축원.

여섯째: 금요일 합동 예배 참석자에게 금지되는 사항:

1- 금요일에 이맘이 설교하고 있을 때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إِذَا قُلْتَ لِصَاحِبِكَ يَوْمَ الْجُمُعَةِ: أَنْصِتْ، وَالْإِمَامُ يَخْطُبُ، فَقَدْ لَغَوتَ».

«금요일 이맘이 설교할 때 네 동료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면, 너는 참으로 헛된 행동을 한 것이라.»[1] 즉, 헛된 말을 한 것이며, 헛된 것이란 죄악입니다.

2- 사람들의 어깨(목)를 넘어 들어가는 것은

[1] 알-부카리(934번), 무슬림(851번) 전승.

혐오(마크루흐)됩니다. 단, 이맘인 경우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빈 공간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금요 예배에 동참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

금요 예배의 두 번째 라크아에서 이맘과 함께 루쿠으에 동참했다면 금요 예배에 동참한 것이며, 그는 2라크아를 채워 마칩니다. 만약 두 번째 라크아의 루쿠으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금요 예배를 놓친 것이며, 두흐르 예배로 4라크아를 채워 마칩니다. 마찬가지로 수면이나 다른 이유로 금요 예배를 놓친 자는 두흐르 예배로 드립니다.

열다섯째: 사유가 있는 자들(아흘루 알아으다르)의 예배:

첫째: 환자의 예배:

첫째: 환자는 자신의 능력껏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는 정신이 온전한 한, 정해진 시간을 넘겨 그것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환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1- 환자는 어려움이나 해로움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면 서서 예배를 드리고, 루쿠으(허리 굽히기)와 수주드(부복)를 해야 합니다.

2- 서 있을 수는 있으나 루쿠으나 수주드를 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간다면, 선 채로 머리를 숙여 루쿠으를 대신하고, 앉은 채로 머리를 숙여 수주드를 대신합니다.

3- 서서 예배할 수 없다면, 앉아서 예배합니다, 서 있어야 할 자세 대신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것이 순나이며, 루쿠으(허리 굽히기)는 몸짓으로 행합니다. 가능하다면 땅에 수주드(부복)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몸짓으로 수주드를 대신하되 루쿠으보다 더 낮게 숙여야 합니다.

4-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얼굴을 끼블라를 향하게 한 채 옆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오른쪽 옆으로 눕는 것이 더 좋으며, 루쿠으와 수주드는 고갯짓으로 대신합니다.

5- 만약 옆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등을 대고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양 발은 끼블라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고개를 숙여 루쿠와 수주드를 행합니다.

6- 만약 루쿠으(허리 굽히기)와 수주드(부복) 시에 몸으로 시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머리로 시늉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시늉하는 것은 면제되며, 마음으로 예배의 동작들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상태 그대로 루쿠으, 수주드, 앉은 자세 등의 예배 동작들을 의도하고, 그에 해당하는 디크르(염원)를 행합니다.

7- 환자는 예배의 조건 중 자신이 능력껏 할 수 있는 것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 끼블라(예배 방향)를 향하는 것, 물로 우두를 하는 것, 불가능할 경우 따얌뭄을 하는 것, 불결함으로부터 청결을 유지하는 것 등입니다. 만약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의무는 면제되며, 자신의 상태에 맞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8- 환자가 서 있는 자세와 루쿠으(허리를 숙인 상태) 시에는 가부좌를 틀고 앉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왼발을 눕혀 그 위에 앉는 것이 순나(선지자의 관행)입니다.

두 번째: 여행자의 예배:

1- 특별한 사정을 지닌 자들 중에는 여행자가 있으며, 그에게는 4라크아 예배를 2라크아로 줄여서 드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وَإِذَا ضَرَبْتُمْ فِي ٱلْأَرْضِ فَلَيْسَ عَلَيْكُمْ جُنَاحٌ أَن تَقْصُرُواْ مِنَ ٱلصَّلَوٰةِ...﴾

너희가 대지를 돌아다닐 때, 너희가 예배를 단축하는 것은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안-니사: 101].

아나쓰 빈 마리크(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خَرَجْنَا مَعَ النَّبِيِّ ﷺ مِنَ الْمَدِينَةِ إِلَى مَكَّةَ، فَكَانَ يُصَلِّي رَكْعَتَيْنِ رَكْعَتَيْنِ، حَتَّى رَجَعْنَا إِلَى الْمَدِينَةِ».

«우리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와 함께 마디나를 떠나 메카로 향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디나로 돌아올

때까지 2라크아씩 예배를 드리셨도다.»[1]

예배의 단축(까쓰르)은 여행자가 거주지의 경계(주거 지역)를 벗어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지를 돌아다니는 자에게 단축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주지를 벗어나기 전에는 대지를 돌아다니는 자도, 여행자도 아닙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도 거주지를 떠나 이동하실 때에만 예배를 단축하셨습니다.

2- 여행자가 그 거리를 이동하고자 할 때 예배를 단축하는 것이 허용되는 거리는 약 80킬로미터입니다.

3- 여행자는 돌아오는 길에도 자신이 출발했던 거주지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여행자가 어떤 지역에 도착하여 머물고자 할 때, 그에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 4일 이상 머물 의도를 가진 경우; 그는 정착한

[1] 알-부카리(1081번), 무슬림(693번) 전승.

첫날부터 예배를 온전히 마쳐야 하며, 여행의 허용 완화 규정들을 취할 수 없습니다.

나) 4일 이하로 머물 의도를 가진 경우; 그는 예배를 단축하고 여행의 허용 완화 규정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 명확히 정해진 체류 의도가 없고, 장소의 상황이나 치료, 혹은 업무 등의 목적에 따라 하루 또는 열흘을 머물 수도 있으며,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 거주지로 돌아갈 경우; 이 경우에는 비록 체류 기간이 4일을 초과하더라도 돌아갈 때까지 예배를 단축하고 여행의 허용 완화 규정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여행자가 정주하는 이맘의 뒤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비록 마지막 타샤흐후드에만 동참했다 하더라도 예배를 온전히 다 마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정주하는 자가 예배를 단축하는 여행자 이맘의 뒤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맘이 타쓸림을 마친 후 정주자는 자신의 예배를 온전히 채워서

마쳐야 합니다.

열여섯 번째: 이드 예배:

무슬림들의 명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신 신성한 명절이며,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명절, 즉 이드 알피뜨르와 이드 알아드하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셨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으나 사람들이 스스로 제정한 불신자들의 명절이나 이단적인(비드아) 명절들과는 다릅니다.

이드 예배의 규정:

공동 의무(파르드 키파야)이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꾸준히 실천하셨고, 올바르게 인도된 칼리파들(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흡족히 여기시길) 또한 이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종교의 표상이자 가장 뚜렷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두 이드 예배의 시간: 이드 예배의 시간은 해가 창 길이만큼 떠올랐을 때, 즉 일출 후 대략 15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가 정점을 지날 때 끝납니다.

이드 예배의 방법:

1- 첫 번째 라크아에서 타크비라툴 이흐람을 한 후, 시작의 두아를 낭송합니다. 그런 다음 여섯 번의 타크비르를 추가로 하며, 각 타크비르마다 양손을 들어 올립니다. 타크비르 사이사이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 이쓰티아다(보호를 구함)와 바쓰말라를 하고 낭송을 시작합니다.

2-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일어설 때 하는 타크비르(이동의 타크비르) 외에 추가로 다섯 번의 타크비르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쓰티아다와 바쓰말라를 하고 낭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알파티하 장 이후에 알아을라 장을,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알가시야 장을 낭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이맘이 타쓸림을 마친 후 민바르에 올라 두

번의 설교를 하며, 금요 설교 때와 같이 두 설교 사이에 가볍게 앉아 구분을 둡니다.

이드(명절)의 권장 사항(순나):

가- 대의무 목욕(구쓸).

나- 청결을 유지하고 향수를 바르는 것.

다- 이드 알피뜨르에는 예배 장소로 나서기 전에 음식을 먹고, 이드 알아드하에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자신이 도축한 희생 제물이 있다면 그 고기로 식사를 하는 것.

라- 걸어서 나가는 것.

마- 갈 때와 돌아올 때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하는 것.

바- 이맘을 제외한 일반 예배자들은 예배 장소에 일찍 도착하는 것.

타크비르:

두 이드의 전날 밤, 둘힞자 달의 첫 열흘, 그리고 타슈리끄의 날들에는 타크비르를 하는 것이 쑨나이며, 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종류: 절대적 타크비르. 특정한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타크비르입니다.

1- 이드 알피뜨르의 경우: 이드 전날 밤 해가 질 때부터 이드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입니다.

2- 이드 알아드하의 경우: 둘힞자 달의 첫째 날 밤 해가 질 때부터 타슈리끄의 마지막 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 종류: 제한적 타크비르. 의무 예배 직후에 하도록 제한된 타크비르입니다.

1- 이흐람 상태가 아닌 자: 아라파의 날 파즈르 예배 후부터 타슈리끄 마지막 날의 아스르 예배 후까지입니다.

2- 이흐람 상태인 자: 이드 당일의 두흐르 예배 후부터 타슈리끄 마지막 날의 아스르 예배 후까지입니다.

열일곱째: 일식과 월식의 예배(솨라툴 쿠쑤프):

월식과 일식의 의미:

월식: 밤에 달빛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식이란 낮에 햇빛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식 예배의 규정:

강조된 쑨나(쑨나 무악카다)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시대에 일식이 일어났을 때 그분께서 이 예배를 드리셨다는 실천이 이를 입증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 예배를 명령하셨음이 이를 뒷받침하며, 학자들은 이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었다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식이나 월식이 시작될 때부터 그것이 물러나 온전히 본모습을 드러낼 때까지입니다.

그 방법:

예배 횟수는 2라크아이며, 두 라크아 모두 소리 내어 낭송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타크비라툴 이흐람을 하고, 시작의 두아와 이쓰티아다, 바쓰말라를 한 후 알파티하를 낭송하고 이어서 아주 길게 낭송합니다.

나- 그런 다음 아주 길게 루쿠으를 합니다.

다- 루쿠으에서 몸을 일으키며 (싸미알라후 리만 하미다흐)라고 말한 후, 다시 알파티하를 낭송하고 이어서 첫 번째보다는 짧게 길게 낭송합니다.

라- 그런 다음 첫 번째 루쿠으보다는 짧지만 길게 루쿠으를 합니다.

마- 루쿠으에서 몸을 일으키며 (싸미알라후 리만 하미다흐)라고 말합니다.

바- 그런 다음 길게 두 번의 쑤주드를 합니다.

사- 그런 다음 몸을 일으켜 두 번째 라크아를 수행하는데, 첫 번째 라크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전체적으로 첫 번째보다 길이를 짧게 합니다.

그것의 순나:

가- '앗솨라투 자미아(예배로 모이라)'라는 외침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

나-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다- 서 있는 자세, 루쿠으, 쑤주드 등 예배를 전체적으로 길게 하는 것.

라- 두 번째 라크아를 첫 번째 라크아보다 짧게 하는 것.

마- 예배 후에 교훈(설교)을 하며, 순종 행위를 장려하고 악행을 금할 것을 촉구하는 것.

바- 기원(두아), 간구, 용서 구하기(이쓰티그파르), 그리고 자선(솨다까)을 많이 하는 것.

열여덟째: 기우제 예배(솨라툴 이쓰티쓰까):

이쓰티쓰까: 가뭄이 들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우제 예배가 규정되는 시기:

기우제 예배는 대지가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으며 비의 끊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규정됩니다. 이때 무슬림들은 그들의 주님께 간구하고 비를 청하며, 다양한 방식의 간절함으로 그분께 도움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 때로는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각자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 때로는 금요 설교 중에 간구함으로써. 설교자가 기원(두아)을 하고 무슬림들은 그의 기도에 '아민'으로 동참합니다.

다- 때로는 예배나 설교 없이 어느 때라도 수시로 기원함으로써.

기우 예배(살라트 알-이스티스까)의 규정:

그 사유가 존재할 때 행하는 강조된 쑨나(쑨나 무악카다)입니다. 압둘라 빈 자이드(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에서와 같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를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하기를:

«خَرَجَ النَّبِيُّ ﷺ إِلَى الْمُصَلَّى، فَاسْتَسْقَى، وَاسْتَقْبَلَ الْقِبْلَةَ، وَقَلَبَ رِدَاءَهُ، وَصَلَّى رَكْعَتَيْنِ».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예배 장소로 나가시어 비를 구하셨노라. 그분께서는 끼블라를 향하여 자신의 겉옷을 뒤집어 걸치셨으며, 2라크아의 예배를 드리셨도다.»[1]

기우제 예배(살라 알-이스티스까)의 방법:

기우제 예배의 절차는 근본적으로 이드 예배와

[1] 알-부카리(1012번), 무슬림(894번) 전승.

같습니다. 이드 예배처럼 야외의 예배 장소(무솰라)에서 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그 규정 또한 이드 예배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라크아의 횟수, 소리 내어 낭송하는 것, 설교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 그리고 낭송 전 첫 번째와 두 번째 라크아에 추가되는 타크비르의 횟수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이는 앞서 두 이드 예배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설교는 단 한 번만 합니다.

열아홉째: 장례의 규정(자나이즈):

첫째: 임종을 앞둔 자 곁에 있는 사람의 의무:

1- 임종을 앞둔 자 곁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라 일라하 일랄라»를 가르치고 일깨워 주는 것이 쑨나입니다.

2- 임종을 앞둔 자를 끼블라 방향으로 눕히는 것이 쑨나입니다.

3- 숨을 거둔 후 그의 두 눈을 감겨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숨을 거둔 후 시신을 천으로 덮는 것이 쑨나입니다.

5- 시신의 장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6- 그의 빚을 신속히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시신을 씻기고(구쓸) 수의로 감싸야(타크핀) 하며, 이는 공동 의무(파르드 키파야)입니다.

둘째: 망자를 위한 예배(장례 예배)의 규정:

그 규정: 공동 의무(파르드 키파야)입니다.

전제 조건:

1) 끼블라를 향하는 것.

2) 아우라를 가릴 것.

3) 불결함을 피하는 것.

4) 예배자와 예배가 드려지는 대상(고인)의 청결.

5) 예배를 행하는 자와 예배의 대상이 되는 자가 모두 무슬림이어야 합니다.

6) 같은 지역에 있을 경우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7) 의무가 부과된 자이어야 한다.

그것의 필수 요소:

1) 예배 중에 서 있어야 합니다.

2) 네 번의 타크비르.

3) 알-파티하(개경장) 낭송.

4)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한 축복 기도.

5) 죽은 자를 위한 기도.

6) 순서 지키기.

7) 타쓸림.

순나:

1) 매 타크비르를 할 때마다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2) 이쓰티아다(보호를 구함).

3) 자신과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4) 속으로 읽기.

5) 네 번째 타크비르 후, 타슬림을 하기 전에 잠시 서 있습니다.

6) 가슴 위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둡니다.

7) 타슬림(평안의 인사)을 할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그 방법:

이맘과 개별 예배자는 망자가 남성일 경우 가슴 부위에, 여성일 경우 허리 부위에 섭니다. 타크비라툴 이흐람을 한 후 이쓰티아다를 하며, 시작의 두아는 생략합니다. 그런 다음 타쓰미야(바쓰말라)를 하고 알파티하를 낭송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타크비르를 하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위해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타크비르를 한 후 전승된 기원문으로 망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اللَّهُمَّ اغْفِرْ لِحَيِّنَا وَمَيِّتِنَا، وَصَغِيرِنَا وَكَبِيرِنَا، وَذَكَرِنَا وَأُنْثَانَا، وَشَاهِدِنَا وَغَائِبِنَا، اللَّهُمَّ مَنْ أَحْيَيْتَهُ مِنَّا فَأَحْيِهِ عَلَى الإِيمَانِ، وَمَنْ تَوَفَّيْتَهُ مِنَّا فَتَوَفَّهُ عَلَى الإِسْلَامِ، اللَّهُمَّ لَا تَحْرِمْنَا أَجْرَهُ، وَلَا تُضِلَّنَا بَعْدَهُ».

«오 하나님, 저희 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어린 자와 나이 든 자,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를 용서하소서. 오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 중 살리시는 자는 믿음(이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두시는 자는 이슬람 안에서 거두소서. 오 하나님, 저희에게 그의 보상을 금하지 마시옵고, 그가 떠난 후에 저희가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1]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للَّهُمَّ اغْفِرْ لَهُ وَارْحَمْهُ، وَعَافِهِ وَاعْفُ عَنْهُ، وَأَكْرِمْ نُزُلَهُ، وَوَسِّعْ مَدْخَلَهُ، وَاغْسِلْهُ بِالْمَاءِ وَالثلْجِ وَالْبَرَدِ، وَنَقِّهِ مِنَ الْخَطَايَا كَمَا نَقَّيْتَ الثَّوْبَ الْأَبْيَضَ مِنَ الدَّنَسِ، وَأَبْدِلْهُ دَارًا خَيْرًا مِنْ دَارِهِ، وَأَهْلًا خَيْرًا مِنْ أَهْلِهِ، وَزَوْجًا خَيْرًا مِنْ زَوْجِهِ، وَأَدْخِلْهُ الْجَنَّةَ، وَأَعِذْهُ مِنْ عَذَابِ الْقَبْرِ، وَمِنْ عَذَابِ النَّارِ».

«오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소서. 그의 머무는 곳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가 들어갈 곳을 넓혀주시며, 물과 눈과 우박으로 그를 씻어주소서. 흰옷을 때에서 씻어내어 깨끗하게 하듯 그의 죄들을 씻어주시옵고, 그의

[1] 아부 다우드(3201번), 앗-티르미디(1024번) 전승. 그리고 그는 '하산 사히흐 하디스'라고 하였다.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그의 가족보다 더 좋은 가족으로, 그의 배우자보다 더 좋은 짝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를 천국에 들이시고, 무덤의 형벌과 불지옥의 형벌로부터 그를 보호하소서.»[1] 그런 다음 네 번째 타크비르를 하고 잠시 멈춘 뒤, 오른쪽으로 한 번의 타슬림을 합니다.

제3절: 자카:

1- 자카의 정의와 위상:

어원적 의미의 자카: 성장과 증가를 의미합니다.

율법적 의미의 자카: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특정 재산에 율법적으로 의무화된 권리입니다.

이는 이슬람의 기둥 중 세 번째 기둥입니다. 자카는 꾸란의 82곳에서 예배(솨라흐)와 짝을 이루어 등장하며, 이는 자카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 무슬림 전승, 번호 (962).

﴿وَأَقِيمُواْ ٱلصَّلَوٰةَ وَءَاتُواْ ٱلزَّكَوٰةَ...﴾

예배를 확립하고 자카(의무 희사)를 바치라... [알-바까라: 43].

그리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بُنِيَ الإِسْلَامُ عَلَى خَمْسٍ: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ـهُ، وَأَنَّ مُحَمَّدًا رَسُولُ اللَّـهِ، وَإِقَامِ الصَّلَاةِ، وَإِيتَاءِ الزَّكَاةِ، وَحَجِّ الْبَيْتِ، وَصَوْمِ رَمَضَانَ».

«이슬람은 다섯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노라.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이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언(샤하다), 예배의 확립, 자카의 납부, 성전(카으바)의 순례(핫즈), 그리고 라마단 단식이니라.»[1]

무슬림들은 자카가 의무라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자카의 의무를 부정하는 자가 불신자가 됨에 합의하였고, 자카 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맞서 싸우는 것에도 합의하였습니다.

[1] 알-부카리(8번), 무슬림(111번) 전승.

2- 자카 납부 의무의 전제 조건:

가)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노예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없으며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에 대한 자카는 주인의 몫입니다.

나) 무슬림이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카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경배 행위이자 순종인데, 불신자는 이를 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니솨브(과세 최저 한도액)를 소유해야 합니다. 니솨브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에는 자카가 부과되지 않으며, 니솨브란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재산의 양을 의미합니다.

라) 완전한 소유권: 재산이 그 사람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소유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에는 자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 해방 계약에 따른 채권과 같은 경우입니다.

마) 재산을 소유한 지 1년(하울)이 지나야

합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선지자로부터 전한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لَا زَكَاةَ فِي مَالٍ حَتَّى يَحُولَ عَلَيْهِ الْحَوْلُ».

«재산을 소유한 지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자카가 없느니라.»[1]

3- 자카가 부과되는 재산의 종류:

첫째: 가축,

낙타, 소, 양(염소 포함)을 말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하에 자카가 부과됩니다:

1- 젖을 짜거나 번식시킬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어야 하며, 노동(농사나 짐 운반 등)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싸이마(즉, 방목하여 기르는 가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사료를 사서 먹이거나, 직접 풀 등을 채집하여 먹이는 가축에는 자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전체 혹은 대부분의

[1] 이븐 마자(1792번), 앗-티르미디(63번, 631번) 전승.

기간이 아니라 일부 기간만 방목하여 기른 가축에도 자카는 없습니다.

4- 가축의 니삽(자카트 부과 기준):

1- 낙타의 자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낙타 5마리당 양 1마리가 부과되며, 10마리면 양 2마리, 15마리면 양 3마리, 20마리면 양 4마리가 부과됩니다. 이는 쑨나와 학자들의 합의(이즈마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낙타가 25마리에 도달하면 '빈트 마카드(1년을 채우고 2년째에 접어든 암컷 낙타)' 1마리가 부과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븐 라분(2년을 채운 수컷 낙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36마리에 도달하면 '빈트 라분(2년을 채운 암컷 낙타)' 1마리가 부과됩니다.

낙타가 46마리에 도달하면 '힉까(3년을 채운 암컷 낙타)' 1마리가 부과됩니다.

낙타가 61마리에 도달하면 '자다아(4년을 채운 암컷 낙타)' 1마리가 부과됩니다.

낙타가 76마리에 도달하면 '빈트 라분' 2마리가

부과됩니다.

낙타가 91마리에 도달하면 '힉까' 2마리가 부과됩니다.

낙타가 121마리가 되면 '빈트 라분' 3마리가 부과되며, 그 이후부터는 40마리당 '빈트 라분' 1마리씩, 50마리당 '힉까' 1마리씩 부과됩니다.

2- 소의 자카:

조건을 충족한 소가 30마리에 도달하면 '타비으' 또는 '타비아'(1년을 채우고 2년째에 접어든 수컷 또는 암컷 소) 1마리가 부과됩니다.

30마리 미만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가 40마리에 도달하면 '무씬나(2년을 채운 암소)' 1마리가 부과됩니다.

소가 40마리를 초과하면, 매 30마리당 타비으(혹은 타비아) 1마리, 매 40마리당 무씬나 1마리씩 부과됩니다.

3- 양의 자카:

양이나 염소의 수가 40마리에 도달하면 양 1마리가 부과되며, 이는 자다으(6개월 이상 된 양)

또는 무씬나(1년 이상 된 암염소)입니다.

40마리 미만일 경우에는 자카가 없습니다. 양이 121마리에 도달하면 2마리가 부과됩니다. 양이 201마리에 도달하면 3마리가 부과됩니다.

이후부터는 산정 방식이 고정되어 매 100마리당 양 1마리씩 부과됩니다. 즉 400마리에는 4마리이며, 이와 같이 계속됩니다.

둘째: 대지에서 나오는 산출물에 대한 자카:

땅에서 나오는 것은 두 종류이다:

1) 곡물과 과실.

2) 광물.

첫 번째 종류: 곡물과 열매:

밀, 보리, 쌀과 같은 곡물에 자카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대추야자, 건포도와 같은 열매에도 부과됩니다. 그 외의 식물들, 즉 채소나 채소류에는 자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곡물과 열매에 대한 자카 의무 조건:

1)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처럼 저장하기 어려운 것에는 자카가

없습니다.

2) 부피(부피 단위)로 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박, 양파, 석류 등처럼 개수나 무게로 파는 것에는 자카가 없습니다.

3) 니솨브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5와쓰끄이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자카가 없습니다.

4) 자카 부과 시점에 그 니솨브의 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확이 끝난 후에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는 등 자카 의무 발생 시간 이후에 소유하게 된 자에게는 해당 자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카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시기:

곡물과 열매가 익기 시작할 때 자카가 부과됩니다. 익기 시작했다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낟알의 경우: 여물고 단단해졌을 때.

나- 대추야자 열매의 경우: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했을 때.

다- 포도의 경우: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졌을 때.

그 니솨브:

곡물과 열매의 니솨브는 5와쓰끄입니다. 1와쓰끄는 60솨으입니다. 따라서 니솨브는 선지자 시대의 기준으로 300솨으가 되며,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대략 900kg입니다.

부과되는 자카의 양:

비용이나 수고 없이 관개된 것, 즉 빗물이나 샘물로 자란 것은 10분의 1(10%)을 바쳐야 합니다.

비용이나 수고가 들어간 것, 즉 우물이나 강에서 가축이나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려 관개한 것은 20분의 1(5%)을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 종류: 광물:

대지에서 나오는 것의 종류 중에는 광물이 있으며, 이는 금, 은, 철, 보석 등 흙의 본질과는 다른 성분으로 대지에서 채굴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자카를 내야 하는 시기:

광물을 채굴하여 소유하게 되면 즉시 자카를 내야 합니다. 1년(하울)이 지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니솨브는 금과 은의 니솨브와 같으며, 그 가치의 40분의 1(2.5%)을 자카로 냅니다.

세번째: 화폐에 대한 자카:

화폐란 금, 은, 그리고 지폐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자카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وَالَّذِينَ يَكْنِزُونَ الذَّهَبَ وَالْفِضَّةَ وَلَا يُنْفِقُونَهَا فِي سَبِيلِ اللَّهِ فَبَشِّرْهُمْ بِعَذَابٍ أَلِيمٍ﴾

금과 은을 축적해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길에 사용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의 소식을 전하라. [앗-타우바: 34].

또한 하디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مَا مِنْ صَاحِبِ ذَهَبٍ وَلَا فِضَّةٍ لَا يُؤَدِّي فِيهَا حَقَّهَا؛ إِلَّا إِذَا كَانَ يَوْمَ الْقِيَامَةِ صُفِّحَتْ لَهُ صَفَائِحُ مِنْ نَارٍ».

«금과 은을 소유하고서도 그것에 대한 권리(자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부활의 날에 그것들이 불의 판으로 만들어져 그에게 씌워질

것이라.»[1]

학자들은 금과 은에 대한 자카 의무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지폐도 금, 은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지폐가 경제 거래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니솨브와 자카 의무량:

그 니솨브는 금이나 은의 니솨브입니다. 지폐가 그 가치를 대신하므로, 두 가지 중 하나의 니솨브에 도달하면 자카가 부과됩니다. 오늘날에는 은을 기준으로 지폐의 니솨브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이 금보다 저렴하여 그 니솨브에 먼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슬림이 은 595그램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유하고 1년이 지났다면 자카 의무가 발생합니다. 은 1그램의 가치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적은 돈을 가지고 있어 니솨브에 도달했는지 확실치 않은 사람은 은 거래상에게 은 1그램의 시세를 물어본 뒤 그 가격에 595를 곱하면 됩니다. 그 결과값이 곧

[1] 알-부카리(1402번), 무슬림(2287번) 전승.

니솨브입니다.

유익한 정보: 재산의 자카를 내고자 할 때에는, 그 니솨브(혹은 전체 재산)를 40으로 나눕니다. 그 나온 값이 바로 내야 할 자카의 양입니다.

넷째: 상업용 물품의 자카:

이윤을 낼 목적으로 매매를 위해 준비된 것들을 말합니다. 상업용 상품에는 현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옷, 옷감, 철, 목재 등 상업을 목적으로 한 모든 것들입니다.

상업용 상품 자카의 의무 조건:

1- 자신의 행위(매매, 임대 등 수입을 얻는 여러 방식)를 통해 소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이윤을 얻고자 하는 상업적 의도를 가지고 소유해야 합니다. 모든 행위는 의도에 따르며, 상업도 행위이므로 다른 행위들처럼 반드시 의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3- 그 가치가 두 화폐(금이나 은) 중 하나의 니솨브에 도달해야 합니다.

4- 1년(하울)이 온전히 지나야 합니다.

상품 자카를 내는 방법:

1년이 지나면 금이나 은 중 하나의 화폐를 기준으로 그 상품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두 화폐 중 하나의 니솨브에 도달했다면, 그 전체 가치의 40분의 1(2.5%)을 냅니다.

다섯째: 이드 알피뜨르의 자카(자카툴 피뜨르):

라마단 달을 마칠 때 내야 하는 의무적인 자선(솨다까)입니다. 히즈라(이주) 제2년에 의무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

자카툴 피뜨르는 이드 날 밤과 낮에 자신과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식량 이상의 남는 식량을 소유한 모든 무슬림에게 의무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모든 무슬림에게 의무입니다. 다음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فَرَضَ رَسُولُ اللَّهِ ﷺ زَكَاةَ الْفِطْرِ عَلَى الْعَبْدِ وَالْحُرِّ، وَالذَّكَرِ وَالْأُنْثَى، وَالصَّغِيرِ وَالْكَبِيرِ، مِنَ الْمُسْلِمِينَ».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무슬림 중 노예와 자유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자카툴 피뜨르를 부과하셨도다.»[1] 여기서 '부과했다(파라다)'는 강제하고 의무화했다는 뜻입니다.

자카툴 피뜨르가 제정된 지혜:

이븐 압바쓰(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فَرَضَ رَسُولُ اللَّهِ ﷺ زَكَاةَ الْفِطْرِ؛ طُهْرَةً لِلصَّائِمِ مِنَ اللَّغْوِ وَالرَّفَثِ، وَطُعْمَةً لِلْمَسَاكِينِ».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단식하는 자가 행한 헛된 말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정화하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도록 자카툴 피뜨르를 의무로 제정하셨노라.»[2]

그 의무 발생과 납부 시간:

---

[1] 알-부카리(1432번), 무슬림(984번) 전승.

[2] 아부 다우드(1609번), 이븐 마자(1827번) 전승, 알-알바니가 '사히흐 아부 다우드'(1609번)에서 사히흐로 판정.

자카툴 피뜨르의 의무는 이드 전날 해가 지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드 당일, 이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드 예배 이후로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드 예배 이후로 미루었다면, 보충(까다)의 형태로 반드시 내야 하며, 정해진 시간을 미룬 것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를 이드(명절) 하루나 이틀 전에 앞당겨 내는 것도 허용된다.

그 양과 내야 하는 품목:

쌀, 대추야자, 밀 등 그 지역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 1솨으입니다. 1솨으의 양은 대략 3킬로그램입니다. 현금 등 가치로 환산하여 대신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카 납부와 그 대상:

그것의 납부 시기:

자카는 의무 발생 시기가 도래하면 즉시 내야

합니다. 재산이 먼 나라에 있고 대리인을 구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 장소:

해당 재산이 있는 지역에서 자카를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허용됩니다:

가- 그 지역에 자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 다른 지역에 자카가 필요한 친척이 있을 때.

다- 율법적 이익(마슬라하)이 있어 이전을 요할 때. 예를 들어 기근이나 홍수 등으로 재난을 당한 무슬림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나 정신 이상자의 재산에도 자카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며, 이들의 재산 관리인(왈리)이 그들을 대신하여 자카를 냅니다. 자카는 반드시 의도(니야)를 가지고 내야만 허용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إِنَّمَا الْأَعْمَالُ بِالنِّيَّاتِ».

«실로 모든 행위는 의도에 달려 있노라.»[1]

자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

자카가 지급되는 부류는 8종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 극빈자들(알푸까라):

주거, 음식, 의복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카의 양은 본인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이 1년 동안 지내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두 번째 부류: 가난한 자들(알마싸킨):

대부분의 필요를 충족할 수는 있으나 온전히 채우지는 못하는 자들입니다. 급여가 있지만 1년을 보내기에는 부족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카의 양은 본인과

[1] 알-부카리(1번), 무슬림(1907번) 전승.

부양가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1년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게 하는 양입니다.

세 번째 부류: 자카 관리인들:

통치자(이맘)로부터 자카 징수 임무를 부여받았거나, 이를 보관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나 수당이 없는 한, 그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임금을 자카에서 지급합니다.

네 번째 부류: 마음을 얻어야 할 자들(무알라파 꿀루부훔):

자카를 지급함으로써 이슬람을 받아들이거나, 믿음이 강해지거나, 무슬림들에 대한 해악을 멈출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 부류: 노예 해방(아르리까브):

노예와 무카탑(해방금을 지불하기로 계약한 노예)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무카탑이란 주인으로부터 자신을 돈으로 사서

자유를 얻기로 약속한 노예를 뜻합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된 무슬림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부류: 채무자(알가리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필요에 의해 빚을 졌으나 갚을 길이 없는 자입니다. 이에게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의 자카가 지급됩니다.

둘째,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화해시키기 위해 빚을 진 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그가 부유한 자라 하더라도 그 빚을 갚아줍니다.

일곱 번째 부류: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들(피 쇼빌릴라):

하나님의 길에서 지하드를 수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자카의 양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지하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탈것, 무기, 식량 등 제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여덟 번째 부류: 여행자(이븐 앗-싸빌):

여비가 떨어졌거나 도둑을 맞아 거주지로 돌아갈 돈이 없는 여행자를 말합니다.

비록 자신의 고향에서는 부유한 자일지라도, 그가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자카로 지급합니다.

제4절: 단식:

단식이란:

여명(파즈르)이 밝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단식을 깨는 것들을 삼감으로써 지고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슬람의 기둥 중 하나이며,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의무 중 하나로, 종교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서와 쑨나, 그리고 무슬림들의 합의(이즈마으)가 그 의무를 입증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شَهۡرُ رَمَضَانَ ٱلَّذِيٓ أُنزِلَ فِيهِ ٱلۡقُرۡءَانُ هُدٗى لِّلنَّاسِ وَبَيِّنَٰتٖ مِّنَ ٱلۡهُدَىٰ وَٱلۡفُرۡقَانِۚ فَمَن شَهِدَ مِنكُمُ ٱلشَّهۡرَ فَلۡيَصُمۡهُ...﴾

라마단 달은 사람들을 위한 인도이자, 인도의 명백한 증거이며, 식별 기준인 꾸란이 내려진 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 그 달을 맞이한 자는 단식을 하라... [알-바까라: 185].

라마단 단식이 의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1- 이슬람. 불신자의 단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성년. 어린아이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단,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무마이즈) 어린아이의 단식은 유효하며, 이는 그에게 자발적 예배(나필라)가 됩니다.

3- 이성. 정신 이상자에게는 단식이 의무가 아니며, 의도(니야)가 없으므로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4- 단식을 수행할 능력.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병든 자에게는 의무가 아니며, 또한 여행자에게도 없으며, 질병이나 여행과 같은 사유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이를 보충(까다)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단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월경 출혈과 산후 출혈이 멈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라마단 달의 시작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가- 라마단 달의 초승달(힐랄)을 관측하는 것.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صُومُوا لِرُؤْيَتِهِ، وَأَفْطِرُوا لِرُؤْيَتِهِ».

«그것(초승달)을 보고 단식을 시작하며, 그것을 보고 단식을 마치라.»[1]

나- 샤으반 달 30일을 꽉 채우는 것. 이는 라마단의 초승달이 보이지 않거나, 구름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관측이 가로막혔을 때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 알-부카리(1810번), 무슬림(1086번) 전승.

«فَإِنْ غُمَّ عَلَيْكُمْ؛ فَأَكْمِلُوا عِدَّةَ شَعْبَانَ ثَلَاثِينَ يَوْمًا».

«만일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거든, 샤@아반 달의 날수를 30일로 채우라.»[1]

단식의 의도(니야):

단식 역시 다른 경배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의도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의무 단식과 그렇지 않은 단식에서 의도를 가져야 하는 시간은 다르며, 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무 단식. 라마단 단식, 보충 단식(까다), 맹세 단식(나드르)과 같은 경우, 여명(파즈르)이 밝기 전 밤에 의도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ن لَمْ يُبَيِّتْ الصِّيَامَ مِنَ اللَّيْلِ فَلَا صِيَامَ لَهُ».

«밤부터 단식을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단식이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909).

없느니라.»[1]

둘째: 자발적 단식. 낮 중에 의도를 가져도 유효합니다. 단, 여명이 밝은 후부터 단식을 깨는 어떠한 것도 섭취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식을 무효로 만드는 것들:

첫째: 성관계. 성관계를 맺으면 단식이 무효가 되며, 성관계를 맺은 그 날을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보충과 함께 속죄(카파라)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노예 1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두 달을 연속으로 단식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율법적 사유로 이조차 할 수 없다면, 60명의 가난한 자들에게 그 지역에서 먹는 식량으로 각각 0.5솨으씩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정액의 배출. 키스, 접촉, 자위행위(이쓰팀나), 또는 반복적인 응시로 인한

[1] 아흐마드(26457번), 아부 다우드(2454번), 안-나싸이(2331번) 전승, 본문구는 안-나싸이의 것임.

경우, 속죄(카파라) 없이 보충만 하면 됩니다. 속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잠든 자가 몽정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불결 상태(자나바)에서 씻기 위해 목욕(구쓸)을 합니다.

세번째: 고의로 먹고 마시는 것: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كُلُواْ وَٱشۡرَبُواْ حَتَّىٰ يَتَبَيَّنَ لَكُمُ ٱلۡخَيۡطُ ٱلۡأَبۡيَضُ مِنَ ٱلۡخَيۡطِ ٱلۡأَسۡوَدِ مِنَ ٱلۡفَجۡرِۖ ثُمَّ أَتِمُّواْ ٱلصِّيَامَ إِلَى ٱلَّيۡلِ...﴾

여명의 흰 실이 검은 실과 구별되어 너희에게 분명해질 때까지 먹고 마시라. 그런 다음 밤이 될 때까지 단식을 온전히 마치라... [알-바까라: 187].

반면, 잊어버리고 먹거나 마신 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디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مَن نَسِيَ وَهُوَ صَائِمٌ، فَأَكَلَ أَوْ شَرِبَ، فَلْيُتِمَّ صَوْمَهُ، فَإِنَّمَا أَطْعَمَهُ اللَّهُ وَسَقَاهُ».

«단식 중임을 잊고 먹거나 마신 자는 단식을 끝까지 마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이니라.»[1]

넷째: 고의로 구토를 하는 것. 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토가 쏟아져 나온 자는 그의 단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نْ ذَرَعَهُ الْقَيءُ فَلَيْسَ عَلَيْهِ قَضَاءٌ، وَمَن اسْتَقَاءَ عَمْدًا فَلْيَقْضِ».

«본의 아니게 구토를 한 자는 누구든 보충할 의무가 없으며, 고의로 구토를 한 자는 누구든 이를 보충하여야 하느니라»[2].

다섯째: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 부항(히자마), 사혈(파스드), 또는 환자를 구급하기 위해 헌혈로 피를 뽑는 행위 등은 모두 단식을 깨뜨립니다. 반면, 검사를 위해 뽑아내는 소량의 피는 단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코피, 상처, 발치 등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피가 나는 것도 단식에

[1] 알-부카리(6669번), 무슬림(2709번) 전승.

[2] 아부 다우드(2380번), 앗-티르미디(719번), 이븐 마자(676번) 전승.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마단에 단식을 깨는 것이 허용되는 자들:

첫 번째 분류: 단식을 깨는 것이 허용되나 보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복이 기대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단식을 하면 해를 입거나 고통스러운 환자.

둘째: 장거리 이동을 하는 자. 장거리 이동 시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무관하다.

이 둘에 대한 증거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وَمَن كَانَ مَرِيضًا أَوْ عَلَىٰ سَفَرٍ فَعِدَّةٌ مِّنْ أَيَّامٍ أُخَرَ...﴾

...누구든 병자이거나 여행 중인 자는 다른 날들로 그 수만큼 채우라... [알-바까라: 185].

셋째: 임산부 또는 수유부. 단식이 고통스럽거나 본인 혹은 아이에게 해가 될 경우, 그들은 환자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단식을 깨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시간에 반드시 단식을 보충해야 합니다.

넷째: 월경 중인 여성과 산후 출혈 중인 여성.

이들에게는 단식을 깨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들의 단식은 유효하지 않으며, 다른 날들에 보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류: 단식을 깨는 것이 허용되며, 보충 없이 속죄(카파라)만 할 의무가 있는 자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을 앓는 환자.

둘째: 단식을 할 수 없는 고령자.

이들은 단식을 깨며, 라마단의 매 하루를 대신하여 가난한 자 1명에게 식량을 제공합니다. 다만, 고령자가 치매 상태에 이르렀다면 율법적 의무가 사라지므로, 단식을 깨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의무 보충 시간 및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정:

라마단 단식의 보충은 그 라마단과 다음 라마단 사이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속히 보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 라마단 이후로 보충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하기를:

«كَانَ يَكُونُ عَلَيَّ الصَّوْمُ مِنْ رَمَضَانَ، فَمَا أَسْتَطِيعُ أَنْ أَقْضِيَ إِلَّا فِي شَعْبَانَ لِمَكَانِ رَسُولِ اللهِ ﷺ».

«내게 보충해야 할 라마단 단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를 모시느라 샤으반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1]

다음 라마단 이후로 보충을 미룬 자에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정당한 율법적 사유로 미룬 경우. 예컨대 질병이 다음 라마단까지 지속된 경우입니다. 이 자는 보충만 하면 됩니다.

2- 정당한 율법적 사유 없이 미룬 경우. 이 자는 미룬 것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며, 회개와 보충, 그리고 하루에 가난한 자 1명에게 식량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충해야 할 단식이 있는 자의 자발적 단식:

[1] 알-부카리(1849번), 무슬림(1846번) 전승.

라마단 단식을 일부 보충해야 할 자는, 자발적 단식을 하기 전에 보충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단식이 아라파의 날 단식이나 아슈라의 날 단식처럼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것이라면, 보충보다 먼저 그것을 단식합니다. 보충은 시간이 넉넉하지만, 아슈라와 아라파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샤우왈 달의 6일 단식은 오직 보충을 마친 후에만 합니다.

단식이 금지된 경우:

1- 이드 알피뜨르 당일과 이드 알아드하 당일. 단식은 금지되었습니다.

2- 둘힞자 달의 타슈리끄 날들. 단, 핫즈에서 타맛투으 또는 끼란 방식을 취한 자가 희생제물(하디)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타슈리끄 날들이란 둘힞자 달의 11일, 12일, 13일을 말합니다.

3- 의심 때문에 의심의 날에 단식하는 것. 즉 샤으반 달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는 그 전날 밤 구름이나 먼지 등으로 초승달 관측이 가로막혔을

때를 말합니다.

단식이 기피(마크루흐)되는 날들:

가- 라잡 달 전체를 단식으로 채우는 것. 나- 금요일만 단독으로 단식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금요일 전후로 하루를 더 단식한다면 기피 사항이 사라집니다.

단식이 순나로 지정된 날들:

가- 샤우왈 달 중의 6일. 나- 둘힞자 달의 첫 9일. 그중 가장 강조된 날은 아라파의 날입니다. 단, 핫즈 순례객에게는 그날의 단식이 쑨나가 아닙니다. 그날 단식하는 것은 2년 치의 죄를 씻어줍니다. 다- 매달 3일간의 단식. 백색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는 13일, 14일, 15일입니다. 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의 단식.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 날들에 단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날에 종복들의 행위가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단식:

가- 다우드(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단식. 하루

단식하고 하루 쉬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달, 무하르람 달의 단식. 단식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며, 그중 가장 강조된 것은 무하르람 10일인 아슈라의 날입니다. 9일도 함께 단식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ئِنْ بَقِيتُ إِلَى قَابِلٍ لَأَصُومَنَّ التَّاسِعَ».

«내가 내년까지 살아있다면, 실로 9일째에도 단식을 하겠노라.»[1] 이는 그 이전 한 해의 죄를 씻어줍니다.

제5장: 대순례(핫즈)와 소순례(우므라)

핫즈의 어원적 의미: '향함, 목적을 둠'입니다. 율법적 의미: 특정한 시간(시즌)에 특정한 의식들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바이트 알하람)과 성지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므라의 어원적 의미: 방문입니다.

[1] 무슬림 전승, 번호 (1134).

율법적 의미: 특정한 의식들을 수행하기 위해 어느 때라도 성스러운 성전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핫즈는 이슬람의 기둥이자 그 위대한 토대 중 하나입니다. 히즈라(이주) 제9년에 의무로 제정되었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단 한 번의 핫즈를 수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별 순례(힐자툴 와다으)'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평생에 한 번 핫즈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경배(타따우으)입니다. 우므라는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의무(와지브)입니다. 그 증거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여성들에게도 지하드의 의무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نَعَمْ، عَلَيْهِنَّ جِهَادٌ لَا قِتَالَ فِيهِ: الْحَجُّ وَالْعُمْرَةُ».

«그렇다. 그녀들에게는 전투가 없는 지하드가

있으니, 바로 핫즈와 우므라이니라.»[1]

핫즈와 우므라 의무의 조건:

1- 이슬람

2- 이성

3- 성년

4- 자유인

5- 능력

여성의 경우 여섯 번째 조건이 추가됩니다. 즉, 순례를 위해 함께 여행할 마흐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흐람 없이는 핫즈이든 그 외의 목적이든 여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لَا تُسَافِرُ الْمَرْأَةُ إِلَّا مَعَ ذِي مَحْرَمٍ، وَلَا يَدْخُلُ عَلَيْهَا رَجُلٌ إِلَّا وَمَعَهَا مَحْرَمٌ».

«여성은 마흐람과 함께가 아니면 여행해서는 안 되며, 그녀에게 마흐람이 함께 있지 않는 한 남성이 그녀에게 들어와서는 안 되느니라.»[2]

---

[1] 아흐마드(25198번), 안-나사이(2627번), 이븐 마자(2901번) 전승.

[2] 알-부카리(1862번), 무슬림(1341번) 전승.

여성의 마흐람이란 그녀의 남편, 또는 혈연 등의 이유로 그녀와 영원히 결혼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혈연인 경우 그녀의 형제, 아버지, 친삼촌, 조카, 외삼촌 등이 있으며, 또는 허용된 사유, 예를 들어 수유로 맺어진 형제나, 인척 관계인 어머니의 남편, 남편의 아들 등이 있습니다.

능력이란 재정적, 신체적 능력을 뜻합니다. 즉, 탈것을 이용하고 여행을 견딜 수 있으며, 왕복하기에 충분한 여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양해야 할 자녀와 가족들에게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분한 비용을 마련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핫즈를 가는 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안전해야 합니다.

재정적 능력은 있으나, 나이가 많아 늙었거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핫즈와 움므라를 수행할 대리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핫즈와 움므라의 대리인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핫즈 의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즉 성년이 되고 이성을 갖춘 무슬림이어야 합니다.

2- 이미 자신을 위해 이슬람의 핫즈 의무를 수행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흐람의 미까트(경계 지점):

마와끼트란 미까트의 복수형으로, 어원적으로는 '한계, 경계'를 뜻합니다. 율법적으로는 예배(순례)의 장소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핫즈에는 시간적 미까트와 공간적 미까트가 있습니다:

가- 시간적 미까트.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급하셨습니다:

﴿ٱلۡحَجُّ أَشۡهُرٞ مَّعۡلُومَٰتٞۚ فَمَن فَرَضَ فِيهِنَّ ٱلۡحَجَّ...﴾

핫즈는 정해진 달들이니라. 그러므로 그 달들에 핫즈를 결심한 자는... [알-바까라: 197].

이 달들이란 샤우왈, 둘끼으다, 그리고 둘힞자

달의 첫 10일입니다.

나- 공간적 미까트. 순례객이 이흐람을 하지 않고 마카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들을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둘훌라이파: 마디나 사람들의 미까트.

2- 알주흐파: 샴 지역(시리아 등), 이집트, 그리고 마그립 사람들의 미까트.

3- 까른 알마나질: 현재 앗-싸일로 알려져 있으며, 나즈드 사람들의 미까트.

4- 다투 이르끄: 이라크 사람들의 미까트.

5- 얄람람: 예멘 사람들의 미까트.

자신의 거주지가 이 미까트들의 경계 안쪽(마카 쪽)에 있는 자는, 핫즈나 우므라를 할 때 자신의 집에서 이흐람을 합니다. 마카에 거주하는 자들은 마카에서 바로 이흐람을 하며, 이흐람을 위해 미까트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므라를 할 때에는 힐(성지 구역 밖)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가서 이흐람을 합니다. 핫즈나 우므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지정하신 장소들에서 이흐람을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공간적 미까트들입니다. 따라서 핫즈나 우므라를 하려는 자가 이흐람 없이 그곳을 넘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미까트들을 지나가는 모든 자는 그곳에서 이흐람을 해야 합니다.

마카로 가는 길에 육로, 해로, 항공로를 막론하고 앞서 언급된 미까트 중 어느 곳도 지나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미까트와 나란히 위치할 때 이흐람을 합니다. 우마르 빈 알카땁(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길에서 그곳(미까트)과 나란한 지점을 살피라.»[1]

항공기를 이용해 핫즈나 우므라 순례를 가는 자는, 항공기가 경로 상의 미까트와 나란히 지날 때 의무적으로 이흐람을 해야 합니다. 항공기가

[1] 알-부카리 전승, 번호 (1531).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이흐람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흐람:

이는 순례 의식(누쑤크)에 진입하려는 의도(니야)를 말합니다. 핫즈의 경우 핫즈에 진입하겠다는 의도이며, 우므라의 경우 우므라에 진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순례에 진입할 의도를 갖지 않으면 이흐람 상태(무흐림)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의도 없이 이흐람 복장만을 입은 것은 이흐람이 아닙니다.

이흐람의 권장 사항들:

1- 이흐람 전에 전신을 씻는 목욕(이그티쌀)을 하는 것.

2- 남성의 경우 이흐람 복장이 아닌 자신의 몸에 향수를 바르는 것.

3- 하얀색의 이자르(하의)와 리다(상의), 그리고 샌들을 착용하고 이흐람 상태에 들어갑니다.

4- 탈것에 올라 끼블라를 향한 상태에서 이흐람을 하는 것.

순례(누쑤크)의 종류:

이흐람 상태인 자(무흐림)는 다음 세 가지 종류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타맛투으. 핫즈의 달들에 우므라로 이흐람을 하여 이를 마친 뒤, 같은 해에 다시 핫즈로 이흐람을 하는 것입니다.

2- 이프라드. 미까트에서 오직 핫즈만으로 이흐람을 하고, 핫즈의 의식들을 다 수행할 때까지 그 이흐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3- 끼란. 핫즈와 우므라를 동시에 이흐람 하거나, 우므라로 이흐람 한 후 우므라의 타와프를 시작하기 전에 핫즈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즉 미까트에서, 또는 우므라 타와프 시작 전에 핫즈와 우므라를 함께 의도하고, 한 번의 타와프와 한 번의 싸으이로 둘을 모두 수행합니다.

성스러운 성원 인근의 거주자가 아니라면, 타맛투으와 끼란 순례자는 속죄(피디야)로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순례 중 가장 좋은 것은

타맛투으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교우들에게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1]. 그다음은 끼란으로, 핫즈와 우므라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이프라드입니다.

다- 이 순례 중 하나로 이흐람을 마쳤다면, 이흐람 직후에 탈비야를 읊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لَبَّيْكَ اللَّهُمَّ لَبَّيْكَ، لَبَّيْكَ لَا شَرِيكَ لَكَ لَبَّيْكَ، إِنَّ الْحَمْدَ وَالنِّعْمَةَ لَكَ وَالْمُلْكَ لَا شَرِيكَ لَكَ».

«랍바이칼라훔마 랍바이크, 랍바이카 라 샤리카 라카 랍바이크, 인날 함다 완니으마타 라칼물크 라 샤리카 라크(주님 분부대로 왔나이다. 오 하나님 분부대로 왔나이다. 분부대로 왔나이다, 당신께는 동반자가 없사옵고, 분부대로 왔나이다. 실로 찬양과 은총과 주권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께는 아무런 동반자가 없나이다).»[2]

---

[1] 무슬림 전승, 번호 (1211).

[2] 알-부카리 전승, 번호 (1549).

이는 순나이며, 많이 암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남성은 이를 소리 내어 읊고, 여성은 속으로 읊습니다.

탈비야의 시간: 이흐람 직후부터 시작되며, 마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므라 순례자는 타와프를 시작하기 전에 탈비야를 멈춥니다.

둘째: 핫즈 순례자는 이드 당일 자마라툴 아까바에 돌 던지기를 시작할 때 멈춥니다.

이흐람 상태에서 금지되는 사항들(마흐두라트):

첫 번째 금지 사항: 몸의 어떤 부위에서든 털을 깎거나, 자르거나, 뽑는 것.

두 번째 금지 사항: 사유 없이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것. 단, 손발톱이 부러져 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속죄(피디야)의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금지 사항: 남성이 따끼야나 구트라처럼 머리에 밀착되는 것으로 머리를 덮는 것.

네 번째 금지 사항: 남성이 셔츠(까미쓰),

터번(이마마), 바지(싸라윌)처럼 몸 전체나 일부의 형태에 맞춰 재봉된 옷(마키뜨)을 입는 것. 재봉된 옷(마키뜨)이란 가죽 양말(쿠프), 장갑, 일반 양말처럼 신체의 부위 크기에 맞춰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가려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흐람 중에도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다. 단, 부르까(얼굴 가리개)는 착용하지 않으며, 외간 남성들이 지나갈 때에는 키마르나 질밥 등 다른 옷가지로 얼굴을 가립니다. 또한 손에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금지 사항: 향수. 이흐람 상태인 자는 사치와 현세의 장식, 쾌락을 멀리하고 내세로 마음을 향해야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금지 사항: 육상 동물을 사냥하거나 죽이는 것. 따라서 무흐림(이흐람 한 자)은 육상 동물을 사냥해서도, 사냥을 도와서도, 그것을 도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무흐림이 직접 사냥한 것, 자신을 위해 사냥된 것, 또는 자신이 사냥을 도운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죽은 고기(마이타)와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양 동물의 사냥은 무흐림에게 금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닭이나 가축처럼 길들여진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사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금지 사항: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 혼인 계약(니카흐)을 맺거나, 그 증인이 되는 것.

여덟 번째 금지 사항: 성관계. 첫 번째 해제(타할룰 알아우왈) 이전에 성관계를 한 자는 그 순례가 무효가 되지만, 계속해서 순례 의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이를 보충해야 하며, 한 마리의 낙타(바다나)를 도축해야 합니다. 만약 첫 번째 해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순례는 무효가 되지 않으나 피(양 한 마리를 도축)를 흘려야 합니다.

여성 또한 이에 동의하여 따랐다면 남성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홉 번째 금지 사항: 성기를 통하지 않은 신체

접촉. 무흐림이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지된 성관계로 이끄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체 접촉(무바샤라)이란 욕정을 가지고 여성을 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므라:

가- 우므라의 기둥(아르칸):

1- 이흐람.

2- 타와프.

3- 싸으이

나- 우므라의 의무(와지바트):

1- 지정된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하는 것.

2-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는 것.

다- 우므라의 절차:

우므라 순례자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7바퀴를 도는 따와프이며, 흑석(알하자르 알아스와드)에서 시작하여 그곳에서 끝납니다. 따와프를 할 때에는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배꼽부터 무릎까지의 아우라를 가려야 합니다.

타와프 내내 이드띠바으를 하는 것이 쑨나입니다. 이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상의(리다으)를 그 밑으로 통과시킨 뒤, 상의의 양 끝을 왼쪽 어깨 위에 걸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바퀴를 마치면 이드띠바으를 풀고 상의로 양어깨를 모두 덮습니다.

흑석을 향해 서서 입을 맞출 수 있다면 입을 맞추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가능하면 오른손으로 그것을 만진 뒤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흑석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멈추지 않고 지나가며 오른손을 들어 올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알라후 아크바르)»라고 한 번 말하며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손에 입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 카으바를 자신의 왼쪽에 두고 따와프를 계속합니다. 처음 세 바퀴에서는 라말을 하는 것이 쑨나입니다. 라말이란 보폭을 좁혀 빠르게 걷는 것을 뜻합니다.

카으바의 네 번째 모서리인 예멘 모서리(루큰 알야마니)를 지날 때 가능하면 오른손으로 만지되,

타크비르(알라후 아크바르라 말함)나 입맞춤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손으로 가리키거나 타크비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멘 모서리와 흑석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رَبَّنَآ ءَاتِنَا فِي ٱلدُّنۡيَا حَسَنَةٗ وَفِي ٱلۡأٓ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ٱلنَّارِ﴾

...저희의 주님이시여, 현세에서도 저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내세에서도 좋은 것을 베푸시며, 불지옥의 형벌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소서. [알-바까라: 201].

타와프를 마치면 가능할 경우 이브라힘(그에게 평화가 있기를)의 자리(마깜 이브라힘) 뒤에서 2라크아의 예배를 드립니다. 불가능하다면 성스러운 성원(마스지드 알하람) 내 어느 곳에서든 2라크아를 드립니다. 첫 번째 라크아에서는 알파티하 장 이후에 알카피룬 장을 낭송하는 것이 쑨나입니다. 두 번째 라크아에서는 알파티하 장 이후에 알이클라스 장을 낭송하는 것이 쑨나입니다. 그런 다음 싸으이 장소(마쓰아)로

향하여 솨파와 마르와 사이를 7번 오갑니다. 가는 것이 한 번이며, 오는 것이 또 한 번입니다.

싸으이는 솨파에서 시작하며, 솨파 언덕에 오르거나 그 곁에 섭니다. 가능하다면 솨파에 오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إِنَّ ٱلصَّفَا وَٱلْمَرْوَةَ مِن شَعَآئِرِ ٱللَّهِ...﴾

실로 솨파와 마르와는 하나님의 표식들 중 하나이니라... [알-바까라: 158].

끼블라를 향해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리며(타크비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اللَّهُ أَكْبَرُ،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لَهُ الْمُلْكُ وَلَهُ الْحَمْدُ، يُحْيِي وَيُمِيتُ، وَهُوَ عَلَى كُلِّ شَيْءٍ قَدِيرٌ،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أَنْجَزَ وَعْدَهُ، وَنَصَرَ عَبْدَهُ، وَهَزَمَ الْأَحْزَابَ وَحْدَهُ».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은 없으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은 없으며, 그분께는 동반자가 없도다. 주권이 그분께 속하며, 찬미가 그분께

속하도다. 그분께서는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시며, 그분은 모든 것에 능하시도다. 오직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대상은 없으며, 그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셨고, 자신의 종복을 도우셨으며, 동맹군을 홀로 물리치셨도다.»[1] 그런 다음 양손을 들어 올려 원하는 바를 기원하며, 이 찬양(디크르)과 기원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내려와 마르와를 향해 걷습니다. 첫 번째 표식(초록색 불빛)에 도달하면 남성은 두 번째 표식에 도달할 때까지 걸음을 재촉하여 빠르게 걷습니다. 여성의 경우 두 표식 사이에서 빠르게 걷는 것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여성을 가려야 할 필요(아우라)가 있기 때문이며, 여성은 사으이 전 구간을 일반적인 걸음으로 걷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걸어 마르와에 도착하면 언덕에 오르거나 그 곁에 섭니다. 가능하다면 오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르와에서는 솨파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하되, 다음의 지고하신

[1] 무슬림 전승, 번호 (1218).

하나님의 말씀 구절은 낭송하지 않습니다:

﴿إِنَّ ٱلصَّفَا وَٱلۡمَرۡوَةَ مِن شَعَآئِرِ ٱللَّهِ...﴾

실로 솨파와 마르와는 하나님의 상징들 중 하나이니라... 이 구절은 첫 번째 바퀴에서 솨파에 오를 때에만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내려와 일반 걸음 구간에서는 걷고 빠른 걸음 구간에서는 빠르게 걸어 솨파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을 7번 반복합니다. 가는 것이 한 번이며, 오는 것이 또 한 번입니다. 싸으이를 하는 동안 찬양(디크르)과 기원(두아)을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불결과 소불결로부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싸으이를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따와프를 마친 후 월경이나 산후 출혈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싸으이를 계속 진행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싸으이에서 청결은 조건이 아니라 권장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싸으이를 마치면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며,

남성은 깎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로써 우므라의 의식을 모두 마친 것이 됩니다.

대순례(핫즈):

가- 핫즈의 기둥(아르칸):

1- 이흐람.

2- 아라파에 머무는 것.

3- 이파다 따와프(따와프 알이파다).

4- 싸으이.

나- 핫즈의 의무(와지바트):

1- 미까트에서 이흐람을 하는 것.

2- 낮에 도착한 자는 둘힞자 달 9일 아라파에서 해가 질 때까지 머무는 것.

3- 둘힞자 달 10일 밤 자정까지 무즈달리파에 머무는 것.

4- 타슈리끄의 날들 밤에 미나에 머무는 것.

5- 돌기둥에 돌을 던지는 것(라미 알자마라트).

6-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는 것.

7- 고별 따와프(따와프 알와다으).

다- 핫즈의 절차:

무슬림은 시간이 촉박할 경우 미까트에 도착하면 단독 핫즈(이프라드)로 이흐람을 맺고 탈비야를 읊습니다. 마카에 도착하여 따와프와 싸으이를 한 뒤, 이흐람 상태를 유지하며 9일 아라파의 날에 아라파트로 향하여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그런 다음 해가 지면 탈비야를 읊으며 무즈달리파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머물며 파즈르 예배를 드리고, 동이 틀 때까지 머무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탈비야를 읊으며 기원합니다.

날이 밝으면 해가 뜨기 전에 미나로 이동합니다. 아까바의 돌기둥(자마라툴 아까바)에 7개의 조약돌을 던진 후 머리카락을 깎거나 자르며, 남성은 깎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 마카로 가서 따와프 알이파다를 합니다. 싸으이는 처음에 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로써 핫즈가 완료되며, 온전한 해제(타할룰) 상태가 됩니다.

남은 일정은 11일과 12일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일정을 서둘러 마칠(타앗줄) 자라면, 이틀 동안 3개의 돌기둥(자마라트)에 각각 7개의 돌을 던지며, 각 돌을 던질 때마다 타크비르를 합니다. 카이프 성원(마스지드 알카이프) 곁에 있는 작은 돌기둥부터 시작하여, 중간 돌기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마라툴 아까바 순으로 던지며, 각 기둥마다 7개의 돌을 던집니다. 만약 12일 이후까지 머물며 일정을 늦추고자(타앗쿠르) 한다면, 13일에도 11일과 12일에 던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는 시간: 이 3일 동안은 모두 해가 정점을 지난 후에 던집니다.

12일 해가 지기 전에 미나를 떠나는 것도 괜찮으나, 13일 해가 정점을 지난 후 돌을 던질 때까지 머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فَمَن تَعَجَّلَ فِي يَوْمَيْنِ فَلَآ إِثْمَ عَلَيْهِ وَمَن تَأَخَّرَ فَلَآ إِثْمَ عَلَيْهِۚ لِمَنِ ٱتَّقَىٰ...﴾

...그러므로 이틀 만에 서둘러 떠나는 자에게도 죄가 없으며, 뒤에 남는 자에게도 죄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

[알-바까라: 203].

그리고 고향으로 떠나고자 할 때에는, 싸으이 없이 7바퀴의 고별 따와프(따와프 알와다으)를 합니다.

만약 순례자에게 바칠 희생 제물(하디)이 없다면, 우므라로 이흐람을 맺고 타맛투으를 취한 후, 8일에 핫즈를 위한 탈비야를 읊고 앞서 언급한 핫즈의 의식들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핫즈와 우므라를 한 번에 이흐람 하더라도 무방하며, 이를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끼란)이라 부릅니다. 이는 우므라와 핫즈를 동시에 이흐람 하여 하나의 따와프와 하나의 싸으이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3장:

거래(무아말라트)에 관련된 사항들

학자들(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은 개별 의무(파르드 아인)로서 반드시 배워야 할 지식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슬림이 필수로 배워야 하는 개별 의무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중 하나로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거래의 규정들을 배우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금지된 행위(하람)나 이자(리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우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 중 일부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우마르 빈 알카탑(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말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만이 우리의 시장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1]

알리 빈 아비 따립(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이 말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전에 상업에 뛰어든 자는 이자의 늪에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즉,

[1] 앗-티르미디 전승, 번호 (487). 앗-티르미디는 하싼 가리브로 평했으며, 알-알바니는 이를 하싼으로 평했습니다.

이자(리바)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1]

이븐 아비딘이 알알라미를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의무를 지닌 모든 남녀(무칼라프)는 종교의 지식과 인도를 배운 후, 우두, 구슬, 예배, 단식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하며, 니솨브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자는 자카에 대한 지식을, 의무가 있는 자는 핫즈에 대한 지식을, 상인은 상거래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는 모든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것과 혐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직업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는 자이든, 그 일에서 금지된 행위(하람)를 피하기 위해 그 일과 관련된 지식과 규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2]

안-나와위(지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가 말했습니다: "매매, 혼인,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은 그 자체로 필수 의무는 아니지만, 그 조건을 알기 전까지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

[1] 참고: 『무그니 알무흐타즈』 (2/22).

[2] 『하쉬야 이븐 아비딘』 (1/42).

금지됩니다."[1]

다음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명시된 재정 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원칙입니다:

1- 순수하거나 더 큰 이익(마슬라하)이 있는 모든 행위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허용된 물건의 매매, 임대(이자라), 선매권(슈프아) 등이 있습니다.[2]

2-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모든 수단은 율법으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라흔)와 증인 세우기 등이 있습니다.

3- 계약 당사자들의 이익(마슬라하)을 위한 모든 규정은 합법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취소(이깔라), 선택권(키야르), 매매 조건 설정 등이 있습니다.

4-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안기고 부당하게 그들의 재산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

[1] 참조: 알-마즈무으 (1/ 50).

[2] 선매권(슈프아): 동업자(공동소유자)가 재정적 보상을 받고 타인에게 지분을 넘기려 할 때, 해당 지분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동업자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리바), 강탈, 독점(매점매석) 등이 있습니다.

5-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는 모든 수단은 율법으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 대출(까르드), 물건 빌려주기(아리야), 보관물(와디아) 등이 있습니다.

6- 노력, 혜택, 수고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과 이자(리바) 등이 있습니다.

7- 무지와 기만(가라르)이 지배적인 모든 거래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물건의 매매, 알 수 없는 물건의 매매 등이 있습니다.

8- 금지된 것(하람)을 우회하기 위한 모든 속임수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이이나 매매(비이으 알이이나)가 있습니다.[1]

9-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1] 이-나 매매(비이으 알이이나):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외상으로 비싸게 팔아 물건을 넘긴 뒤, 그 외상값을 받기 전에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물건을 원래보다 더 적은 현금으로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 예배의 두 번째 아단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매가 있습니다.

10- 피해를 주거나 무슬림들 사이에 적대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된 물건의 매매, 형제가 이미 계약 중인 거래에 끼어들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무슬림은 어떤 문제의 율법적 규정이 모호할 때, 학자들에게 그에 대해 질문해야 하며, 해당 문제의 율법적 규정을 알기 전까지는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فَاسْأَلُوا أَهْلَ الذِّكْرِ إِنْ كُنْتُمْ لَا تَعْلَمُونَ﴾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물으라. [안-나흘: 43].

이것이 쉽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과 올바른 행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로 그분께서는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교우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

الفهرس

무슬림으로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 2
서문 2
제1장: 3
아끼다(신앙)와 관련된 내용 3
제1절: 이슬람의 의미와 그 기둥들: 3
유일신 사상의 중요성: 4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는 없다"는 증언의 의미: 6
"라 일라하 일랄라(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증언의 의미입니다: 9
제2절: 믿음의 의미와 필수 요소들: 11
1) 지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합니다: 13
1- 그분의 주님 되심에 대한 믿음: 13
2-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믿음: 16
3-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한 믿음: 20
2) 천사들에 대한 믿음: 31
3) 성서들에 대한 믿음: 33
4) 사도들(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에 대한 믿음: 34

5) 최후의 날에 대한 믿음: 36
가- 부활에 대한 믿음: 36
나- 심판과 보상에 대한 믿음: 37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37
6) 정명에 대한 믿음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 38
제3절: 이흐싼(선행/온전함): 41
제4절: 아흘룻순나 왈 자마아의 기본 원리 약설: 43
제2장: 경배 행위(이바다)에 관한 사항 45
제1절: 청결(따하라): 45
첫째: 물의 종류: 45
둘째: 오물(나자싸): 46
셋째: 불결한 상태(무흐디쓰)에 있는 자에게 금지된 행위: 49
넷째: 용변을 볼 때의 예절: 53
다섯째: 이쓰틴자와 이쓰티즈마르의 규정: 54
여섯째: 우두의 규정: 55
일곱째: 가죽 양말(쿠프)과 일반 양말(자우라브) 위를 닦는 규정: 58
여덟째: 건조 세정(타얌뭄) 규정: 61
아홉째: 월경과 산후 출혈의 규정: 65
제2절: 예배: 67

첫째: 아단과 이까마의 규정: 67
둘째: 예배의 지위와 덕목: 72
셋째: 예배의 조건: 76
넷째: 예배의 기둥(아르칸): 78
다섯째: 예배의 의무 요소들(와지바트): 86
여섯째: 예배의 권장 사항(순나): 88
일곱째: 예배의 절차: 92
여덟째: 예배 시 혐오되는 사항들(마크루하트): 100
아홉 번째: 예배를 무효화하는 것들: 101
열 번째: 수주드 알-사흐우(망각의 수주드): 102
열한 번째: 예배가 금지된 시간: 105
열두 번째: 합동 예배: 106
열세 번째: 두려움의 예배(솰라툴 카우프): 110
두려움의 예배(솰라툴 카우프)의 방법: 111
열넷째: 금요 예배(솨라툴 주무아): 112
다섯째: 금요일의 권장 사항들: 115
금요 예배에 동참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 117
열다섯째: 사유가 있는 자들(아흘루 알아으다르)의 예배: 117
열여섯 번째: 이드 예배: 123
열일곱째: 일식과 월식의 예배(솨라툴 쿠쑤프): 126

열여덟째: 기우제 예배(솨라툴 이쓰티쓰까): 129
열아홉째: 장례의 규정(자나이즈): 131
제3절: 자카: 136
1- 자카의 정의와 위상: 136
2- 자카 납부 의무의 전제 조건: 138
3- 자카가 부과되는 재산의 종류: 139
제4절: 단식: 155
라마단 단식이 의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156
제5장: 대순례(핫즈)와 소순례(우므라) 167
핫즈와 우므라 의무의 조건: 169
이흐람의 미까트(경계 지점): 171
이흐람: 174
우므라: 180
대순례(핫즈): 186
제3장: 189
거래(무아말라트)에 관련된 사항들 189

❋❋❋

ko227v3.1 - 14/06/2026

رئاسة الشؤون الدينية بالمسجد الحرام والمسجد النبوي

رسالة الحرمين

Message of The Two Holy Mosques

Guidance content for the visitors of the Holy Mosque and the Prophet's Mosque in languages

978-603-517-661-3